이석채 배임·횡령 무죄

메트로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제330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947.10 (+2.46)

코스닥 683.88 (+3.60)

금리(국고채 3년) 1.6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91.00 (+1.50)

특혜주고 받는 건 교통체증

출처=신라면세점

하반기 면세점 입찰 또 재벌만의 잔치
점수따기용 '상생'… 주변상권 피폐화
"일본은 골목상권 살리기용으로 활용"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 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1~12월 특허 기간이 끝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은 서울의 롯데면세점 소공점·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등 4곳이다.

수성(守城) 과 동시에 공성(攻城)차원에서 롯데(회장 신동빈)·신세계(부회장 정용진)·SK(회장 최태원)·두산(회장 박용만) 그룹이 출사표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두산은 서울 면세점 3곳 모두에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마다 자동 갱신되던 면세점 특허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어느 기업이든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비유되는 신규 면세점은 재벌들의 격전장이 돼가고 있다.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특허권 신규 배정에서도 중소기업들과 영세상인들은 제외됐다. 세금이 면제되는 특혜 사업이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자체가 특혜인데 대기업에게 또 특혜를 주는 것은 재벌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소수 대기업에게만 면허 제도를 통해 몰아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4조2171억원으로 점유율 50.76%를 차지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매출 2조5346억원으로 점유율 30.54%다. 두 기업의 면세점 점유율 합계는 81.30%다.

재벌기업들은 면세점 사업 전략을 발표하며 '상생'을 앞세운다. 관세청의 면세점 입찰 심사기준에 상생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생모델을 모색하기보다 구색 맞추기 식의 발표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재벌에 특혜만 주고 시민들이 받는 것은 교통체증 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번에 부산 센텀시티 면세점 방어와 서울시내 면세점 도전을 동시에 하는 신세계그룹은 백화점 본점 옆에 있는 남대문 시장과의 상생을 또 내세웠다. 하지만 신세계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나 '남대문시장 살리기' 업무협약을 맺었을 뿐, 이렇다할 상생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산은 동대문시장 내 있는 두산타워에면세점 유치 계획을 밝히며 '동대문 시장'과의 상생을 내세웠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과 동대문 관광특구협의회의 면세점 유치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서 동대문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으로 면세점 신청을 했다 탈락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 면세점은 매번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 얼마든지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상생 모델을 관세청이 제시할 수 있음에도 자본을 가진 대기업 잔치로 만든다"며 "일본의 경우는 면세점이 대기업의 특혜사업이 아닌 골목상권의 주요 사업이다.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대기업의 수익 사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도심 대규모 복합쇼핑몰 금지"

재벌 대기업이 전국 각지의 도심에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만㎡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아예 건축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34만㎡가 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사업을 신세계에 제안하고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24일 '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이란 이름을 붙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 건축하려 할 때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면적이 1만㎡를 넘을 경우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규모점포를 규제해왔지만, 이미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규제하다보니 실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업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위원회는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로 인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가 받는 피해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하고,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지키는 정당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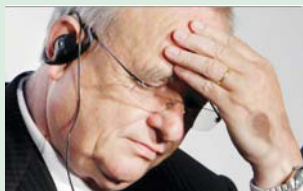
An end of diesel car?

디젤차의 종언?

The automobile market began to totter in the aftermath of Volkswagen's "deliberate circumvention of diesel emission".

After the company admitted that 11 million of its cars might have been affected by cheating emmisions with computer software devices that could sense test scenarios when they were being tested, specialists started questioning about diesel cars that were released with a title of "environment friendly and high mileage".

Some say that this scandal might result a paradigm shift to electric vihicles. This scandal started after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ound out the fact that the Volkswagen's cars that were popular in North America had 40 times more NOx emissions than when it was tested.

With a help of the scandal, electric vehicle companies have an opportunity to enhance their presence. Apple, the IT company, i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electric cars with a plan to release them in 2019. 600 of Apple's researchers and employees are developing electric cars with a team name 'Titan'. Also the company has recently allowed the team to expand its project scale up to three times bigger which shows their clear will.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속임수'가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폭스바겐 측이 자사의 디젤 승용차 1100만대가 배출가스 차단장치 소프트웨어(SW)로 테스트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문가들은 '고연비·친환경' 타이틀을 단 디젤차량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눈속임' 사태를 계기로 전기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북미에서 인기를 몰아가던 폭스바겐 차량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차량 검사 때와 실제 주행시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면서다. 폭스바겐의 위기로 전기차 업체는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IT기업 애플은 2019년 전기차 출시를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 애플 연구원과 직원 600명이 타이탄이라는 팀명을 달고 개발 중이다. 애플은 현재팀의 규모를 세 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차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회

▲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 재검할 뜻이 없다고 밝히며 최근 다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는 추석 연휴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의 일별·시간대별 소통상황을 예측해 알려주는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 법원이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마약을 상습 투약해 재판을 받았던 남편 이모(38)씨와 자신이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검찰 조사를 자청했다.

▲ 16년 만에 재개된 '**이태원 살인 사건**' 재판과 관련,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를 재판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공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치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주장이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 비주류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파 숙청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 달 민중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육사39기·55) 대령이 37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국제

▲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기가스 장치 조작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다른 자동차사의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폭스바겐 사태가 확대되고 걷고 있다.

▲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메카** 외곽의 미나에서 24일 열린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산불**로 인한 연무 오염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무가 인근으로 번져 싱가포르의 대기 오염이 3주째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시장을 더 개방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 78호, 83호 반가사유상 비교 전시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 미디어 공개행사에서 6세기 후반 삼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왼쪽)과 7세기 전반 신라에서 제작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비교 전시 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이전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인도, 중국, 일본 등 7개국의 고대 불상 걸작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11월 15일까지 전시된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전자가 올 하반기 야심작으로 준비한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전부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사장이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진두지휘하며 내놓는 첫 번째 제품으로 디자인과 카메라 기능을 크게 강화해 젊은 소비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메모리반도체의 '강자' **SK하이닉스**가 불안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5890억원, 1조3750억원이었다.

▲ **효성**이 2012년부터 맺어온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의 인연이 올해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이어졌다. 효성 산업자재PG 임직원들은 2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경로당 두 곳을 방문해 나눔 행사에 나섰다.

▲ **LG디스플레이**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부사장(CPO), 김상돈 전무(CFO), 권동섭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경협의회위원들과 임직원 80여명은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지난 7월31일 신세계건설이 시공 중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사고 현장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 농심은 24일 **짜왕**을 미국에 정식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1만5000박스를 처음 선적했으며 초도 물량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문이 잇따라 같은 양을 추가 선적했다.

▲ 25일 서울(3곳)과 부산(1곳)의 **면세점 운영특허권**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면세점 입찰도 재벌들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증권 시장에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글 벳 등 동물 사료와 의약품 업체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LIG넥스원이 '방산비리' 수사의 영향으로 공모 청약에서 다소 저조한 경쟁률인 4.74대 1로 마감됐다.

▲ 앞으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 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기업들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8조5819억원으로 전월(14조1649억원) 대비 39.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폭스바겐발 디젤차 사태 '일파만파'

배기가스 장치 조작 관련 타사 디젤차로 조사 확대

미국 정부는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배기가스 장치 조작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다른 자동차사의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 이외 자동차사가 생산한 디젤차가 미국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려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로써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은 세계 자동차 업계 전체로 파급돼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EPA는 새로운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선 독일 BMW와 다이믈러, 미국 제너럴 모터스(GM) 등이 제조하는 디젤 차종이 거론되고 있다.

유럽도 디젤차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인 유럽 교통환경연맹에 따르면 디젤차들은 평균 허용치의 5배에 달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MW와 오펠의 일부 차량은 실제 주행시에 실험실 테스트에 비해 10배나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스 딩스 연맹 사무국장은 "폭스바겐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런 상황이 폭스바겐에 국한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검사결과 데이터를 보면 그들도 역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폭스바겐과 같은 배출가스 검사시 데이터 조작은 자동차 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수십 년 된 관행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칫 불똥이 자동차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NYT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자동차업계는 관계당국의 검사시 배출가스와 연비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찾아 규제를 피하고 당국을 속여온 기록이 있다. NYT는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상습적으로 규제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제를 위반했다고 최고경영자(CEO)나 책임자가 구속되는 식의 형사상 처벌이 없어서 눈속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의 마르틴 빈터코른 CEO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폭스바겐 사태의 파장이 다른 자동차업체에도 미치고 있다. 다임러, BMW, 르노, 푸조 등 유럽 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도 줄줄이 급락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경쟁업체들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는 전날 각각 1.03%, 1.72% 떨어졌다. 두 업체의 주가는 지난 22일에도 각각 1.93%, 2.79% 하락 마감했다. 고급형 전기자동차생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 역시 지난 22일 3% 넘게 급락했다. 한국 현대차는 지난 22일 환율과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3% 이상 급등했지만 전날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4.27% 급락했다. 이날 장기 연휴를 마치고 나흘 만에 개장한 일본 증시에서 도요타 주가도 1% 이상 하락했다. 사진은 도쿄증시에서 자동차주의 하락을 지켜보며 머리를 감싸쥔 투자자의 모습. /연합뉴스

'중국은 미국의 큰손' 방미중인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주 에버렛소재 보잉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보잉사와 300대 규모의 여객기 구매에 합의하는 한편 B737 여객기 조립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여직원 '투신 시도' 소동

업무 스트레스로 충동적 행동

외교부 청사에서 24일 여직원의 투신 시도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한 7급 여직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17층 접견실의 창문 난간을 넘으려고 시도했다. 마침 청사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외교부와 청사관리소에 신고했고, 119구조대와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갔다.

이 여직원은 청사관리소 방호원 등의 설득에 난간에서 내려왔다.

이 여직원은 투신 시도 이유에 대해 "2월에 (부서이동으로) 업무가 바뀌었는데 업무의 성격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송병형 기자

美 최신예 핵항모, 내달 부산항 입항

북한 미사일 도발에 경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기에 맞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10만4200t급)가 다음달 18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명목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광복 및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석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적인 핵실험 도발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해군은 23일(현지시간)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요코스카로 이동 중인 사실을 공개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활동하던 조지 워싱턴호를 대체하며 배치됐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슈퍼호넷(F/A-18) 전투기, 전자전기(EA-6B), 공중조기경보기(E-2C)를 비롯한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 부산항 입항은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 관함식은 내달 18~23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와 오륙도~송정 해역에서 열리며 35개국 해군 등 5만여명이 참가한다. 이번에 입항하는 로널드 레이건호는 이번 관함식에서 위용을 떨치며 관함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레이건호 입항은 다음달 10~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계기 미 공군의 F-22 랩터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방한과도 맞물린다.

항공모함과 F-22 전투기는 미국의 전략무기로 전략폭격기 등과 함께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송병형 기자

새정치 혁신위 '인적쇄신' 당 안팎서 뭇매

조경태 "나를 제명하라"
천정배 "반대파 제거용"
김무성 "반대파 숙청도구"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맨 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임이 드러났다"며 "징계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고 말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 주장이 당 안팎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당내 비주류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야권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반대파 숙청용'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혁신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혁신위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가 혁신위 권고를 받아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는 영도구 얘기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다. 결정은 문 대표가 해야겠지만 김 대표와 한번 붙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혁신위가 문 대표의 부산 출마(내년 총선)를 요구한 목적에 대한 설명이었다.

조 교수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는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부산 동반 출격을 요구했다. 부산이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안 의원을 비롯한 전직 대표들에 대해 전날 혁신위가 사지 출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대표 중 일부는 용퇴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주장은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인 두 대표가 총선에서 대선 '전초전'을 치르라는 요구여서 일각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반발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전날 혁신위에 의해 해당행위자로 낙인 찍힌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가 문 대표의 전위부대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통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라며 "뜸들이지 말고 나를 제명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에 드는 자신들의 패거리들만 같이 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혁신위의 목적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분열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라디오방송에 나와 "문 대표에게 부산 출마하는 것이 희생인지 잘 모르겠다"며 "비노(비노무현) 수장들을 제거하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전직대표들을 끼워서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혁신위도 끝나고 국민을 감동시킬 변화도 없을 것 같다. 안 의원도 당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머무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권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 중인 김 대표는 "소위 사람을 바꾼다는 개혁은 권력의 힘으로 반대편을 숙청하는 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개혁이라고 볼 수 없고 제도를 바꿔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사람을 많이 바꿨지만 정치 발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개혁이라는 칼날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며 모든 판단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살신성인' 이종명 대령 전역

DMZ서 전우 구하려다 지뢰 폭발로 다리 잃어

계룡대 연병장에서 진행된 전역식에 참가한 이종명 대령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때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어 '살신성인'의 표상이 됐던 이종명(육사39기·55) 대령이 37년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고 24일 육군이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대령은 2000년 6월 27일 당시 중령으로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후 군에 남아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15년 전 DMZ 수색작전 당시 그는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하다가 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었다. 그는 추가 폭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가겠다"며 전우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참군인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군은 이 대령의 사례를 통해 신체장애를 당한 현역 군인이 계속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덕분에 이 대령은 2년 반의 치료과정을 거쳐 군에 복귀해 정년까지 복무하고 이번에 전역했다.

그는 이날 함께 전역한 대령들을 대표한 전역사에서 "지난 37년간 발전하는 조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동참해 그 대열에 서 작은 힘을 보태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예비전력이자 육군의 홍보대사로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장준규 총장은 "육군이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책임감과 열정으로 그동안 육군을 이끌어온 여러분 덕분이라며 육군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귀한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병형 기자

김무성 "민주노총, 귀족노조 사조직 전락"

내달 민중 총궐기 예고에 "노조의 본분 망각" 비판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해 총파업 집회를 열고 다음 달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주의적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은 더이상 노동자대표가 아닌 이익집단, 귀족 강성노조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를 언급한 뒤 "추석을 앞두고 도심에서 벌어진 파업 집회에 대해 국민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싸늘한지 민노총만 모르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의 협상 당사자였음에도 대화와 타협의 협상테이블을 걷어차고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야합으로 규정하는 건 노조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식 후진행태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해외 원정시위를 추진한 데 대해서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일방적인 거짓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국민 앞에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김 대표에게 방송토론을 제안했다. /송병형 기자

'친박 대선주자설' 반기문, 朴 대통령과 회동

유엔(UN) 총회에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친박근혜계(친박) 대선 주자설이 돌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28일의 미국 뉴욕 방문을 통해 참석하게 될 제70차 유엔 총회 관련 일정에서 반 총장과 수차례 만남을 갖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유엔 총회 때에도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유엔 총회와 기후정상회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상급회의 등에서 잇따라 만남을 가졌으며 뉴욕 방문 첫 날에도 별도로 사무총장 관저에서 반 총장과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공식 일정 외에도 반 총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2007년부터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가운데 연임까지 하고 있는 반 총장인만큼 모국 정상과 별도 회동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친박 핵심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들 중에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언급해 여권에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반 총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4선 의원 운운은 가림막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반 총장은 국회의원 출신은 아니지만 충청권 대선후보군으로 높은 지지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송병형 기자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무죄 선고

<전 KT 회장>

法 "당시 KT의 투자결정은 합리적"

법원이 잘못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 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사진) 전 KT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비자금 중 11억7000만원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 반 심리 끝에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외부 컨설팅 결과 등 정식 절차를 밟았으며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각 회사의 가치를 낮게 잡아 배임혐의를 적용했지만 현재보다 미래가치를 보는 벤처투자의 특성을 간과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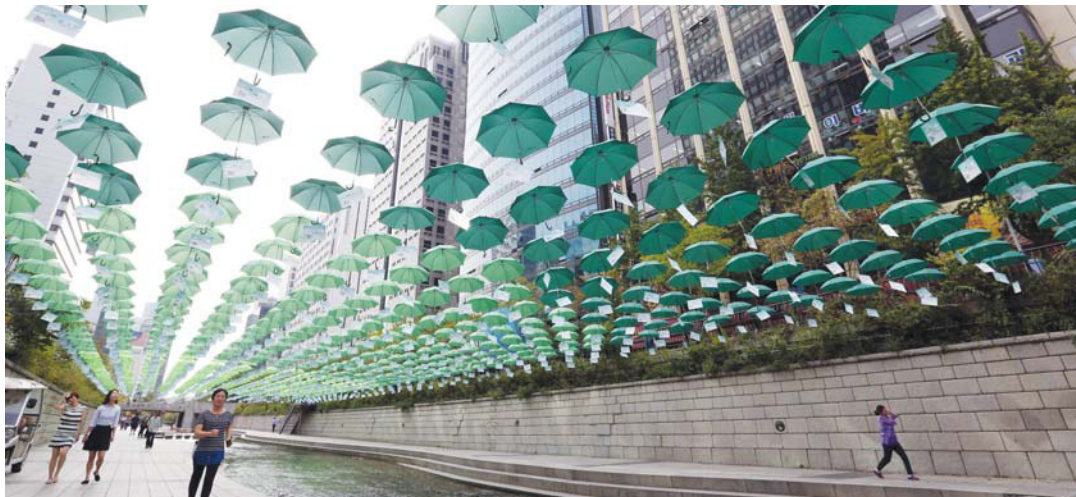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 내지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거래처 유지 목적에 썼다"고 판단해 횡령도 무죄로 봤다.

특히 축의·부의금 사용 760회 중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인 2013년 10월 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 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그해 11월12일 사임했고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서유열(59) 전 KT 사장 역시 이날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청계천 가득 초록우산 24일 서울 서린동 청계천 모전교 일대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우산들이 설치돼 있다. 초록 우산은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물 부족 현실을 알리고 이를 돕기 위한 행사로 우산 하나하나에 후원자의 이름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딸 "마약혐의 있으면 처벌해달라"

검찰 조사 자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마약을 상습 투약해 재판을 받았던 남편 이모(38)씨와 자신이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검찰 조사를 자청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의 차녀 현경(32)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나를 조사해서 마약 혐의가 있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현경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을 조사해 마약 투약 혐의가 없을 경우 이같은 의혹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킨 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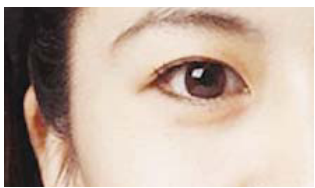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김 대표 측은 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다른 기관에서 현경씨에 대한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 이씨가 결혼 전 마약을 상습 투약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달 10일 이후 각종 보도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각종 의혹이 확산하면서 현경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함께 퍼졌다.

검찰은 남편 이씨를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복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올해 2월 법원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이씨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주사기 10여개를 토대로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미란 기자

마음의 창 '눈', 개인에 맞는 쌍꺼풀수술 최선

피부상태·근육의 힘 등 달라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얼굴에서 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하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이다. 그 이유는 유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몽고족 계통으로 동양인 중에서 가장 미인이 많은 민족이지만 눈이 작고 눈뜨는 힘이 약한 눈매가 특징이다. 이런 특징적인 눈매의 해부학적인 원인은 눈을 뜨는 근육인 상안검거근에 연결돼서 커튼처럼 눈꺼풀의 안쪽에 드리워진 상안검거근막이 필요 이상으로 길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천적으로 쌍꺼풀을 가진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속쌍꺼풀을 포함해 선천적으로 쌍꺼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전체 인구의 40% 미만, 그런데도 거리에 나가 보면 대부분의 젊은

여성이 쌍꺼풀 진 커다란 눈을 하고 있다. 이는 쌍꺼풀수술이 얼마나 대중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시원하고 큰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쌍꺼풀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안검거근을 어느 정도 줄여줌으로써 세로로 크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몽고주름을 해결한다든지, 앞트임이나, 뒤트임 같은 시술로써 가로로 크게 함으로써 시원하고 아름다운 눈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눈성형의 목적은 쌍꺼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더 예쁘고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쌍꺼풀은 단지 눈꺼풀에 라인을 만드는 것 이외에 늘어진 눈꺼풀 절제, 속눈썹 올리기, 지방 제거 정도이지 눈의 크기나 눈매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이 작고 눈매가 매서운 경우라면 단순한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수술 후에 부자연스럽고 두꺼운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방법으로 쌍꺼풀을 디자인하고 수술해도 눈뜨는 정도가 적고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두껍고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다. 또한 양쪽 눈의 눈뜨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눈뜨는 힘이 약한 쪽만 두꺼운 쌍꺼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눈이 작고 눈 뜨는 힘이 약한 경우, 매서운 눈매라면 근본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듯이 상안검거근을 줄여줌으로써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듯이 사람에 따라서 피부상태나 눈꺼풀에 작용하는 근육의 힘 등등의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눈성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다.

◇도움글: 코엔아이 성형외과 이성길 원장

건보공단, 추석 맞이 사랑나눔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추석맞이 찾아가는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역본부의 추석맞이 사랑나눔행사는 2005년 사회봉사단을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지속돼온 사업이다.

올해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새힘터 양로원과 서울 사회복지시설 2곳(토마스의 집, 브니엘의집), 조손 가정 등 자매결연 9세대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임재룡 본부장은 "앞으로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작은 도서관 기증(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의료봉사, 김장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국민 행복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강원도 횡성군 양로원과 사회복지 시설 등 자매결연 9세대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제공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檢 ‘이태원 살인사건’ 과거 실수 만회 할까

당시 수사검사 재판 투입 패터슨도 韓 변호사 선임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6년 만에 재개된 ‘이태원 살인사건’ 재판과 관련,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사를 재판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치밀한 공판 전략을 세우고 있다.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공소유지를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맡기되, 수사검사로서 2011년 말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박철완(43·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함께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선 수사부서가 재판을 맡고 과거 수사 검사까지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검찰이 패터슨을 놓아주었던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사건은 애초 검찰이 주범으로 여겼던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로 풀려난 뒤 공범신분이었던 패터슨마저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검찰에 뼈아픈 기억을 남겼다.

재수사 끝에 패터슨이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검찰은 패터슨의 혐의사실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18년 전의 사건이어서 이미 확보된 자료 외에 보강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은 이 사건의 생생한 수사경험을 지닌 박 부장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박 부장검사는 현재 부산고검 소속이다.

검찰은 사건을 자체 수사하고 한국 경찰에 패터슨의 신병을 넘겼던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ID는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조중필씨가 숨진 채 발견됐던 1997년 4월 당시 미8군 영내에서 패터슨을 체포했다. 패터슨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지만 CID는 패터슨이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CID의 당시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 외에도 당시 CID 수사 담당자가 아직 한국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법정 증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송환 문제로 소송을 벌일 당시 한국 출생인 패터슨 모친의 부탁을 받고 한국 법률 자문을 해 줬던 인연이 있다.

여전히 “에드워드 리가 마약을 복용하고 범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패터슨 측은 사건 기록을 확보해 재판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비자금’ 포스코건설 전 상무 징역형

法 “관행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2년6개월 선고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1억1300만원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의 계획이나 허락, 내부 결재 등 과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혼자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규모를 결정해 은밀하게 진행했으며 지출도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 비자금 일부를 환치기 방식으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사업하면서 관행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법인장을 지내던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 등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서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300만원을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이 업체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연미란 기자

고향 앞으로 추석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과 시민들이 열차 탑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유병언 도피 총괄’ 오갑렬, 무죄 확정

<전 체코대사>

대법원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범인은닉·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씨의 도피를 돕고 편지 등으로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친족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런 죄를 범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오 전 대사는 유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된다. 대법원도 이런 법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미란 기자

檢 ‘함바 비리’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불구속기소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24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허대영(59)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씨로부터 유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S사 대표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5월 “부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통해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차례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이 받은 금품 목록에는 10만원권 상품권 30장과

100만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2자루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기간 유씨가 허 전 이사장의 집을 세 차례 찾아가 양주 등 600만원 상당의 술을 박스째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작년 4~6월 유씨에게서 12차례 525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유씨는 건설공사 관할지역 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에게 부탁해 함바 수주를 도와달라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는 유씨로부터 “함바 수주를 청탁할 광주의 한 경찰서 간부의 연락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지역 건설회사 사장 이씨에게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성씨는 그 대가로 유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이씨에게 줬다.

성씨는 주로 청탁할 경찰서 주차장에서 300만~500만원씩 돈을 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경찰 간부들에게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이 건너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직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부산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다.

/연미란 기자

편안하게 모시는 역무마이스터,
안정국

안심을 드리는 승무마이스터,
민용기

최고성능으로 모시는 차량마이스터,
김현철

지혜를 더하는 기술마이스터,
임동식

명장의 서비스로 24시
명장의 안전으로 365일 서울메트로마이스터가 함께 합니다

LG전자 야심작 '슈퍼폰' 기대감 고조

디자인·듀얼카메라… 젊은층 반응 좋아

LG전자가 올 하반기 야심작으로 준비한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전부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준호 사장이 기획, 개발 단계부터 진두지휘하며 내놓는 첫 번째 제품으로 디자인과 카메라 기능을 크게 강화해 젊은 소비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 관계자는 "LG전자가 신제품 영상을 공개한 뒤 '슈퍼폰'의 카메라 기능과 가격에 젊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출고가가 책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면 충분히 흥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LG전자가 유튜브에 올린 티저 영상을 보면 이 스마트폰의 전면에는 2개의 카메라 렌즈가 탑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카메라 기능이 한층 강화됐음을 짐작케 한다. 업계 예상대로 듀얼 카메라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Ready, Action'이라는 시작음과 함께 14초 동안 계속되는데 두눈을 가린 여성 모델의 앞머리를 중간에 가위로 왼쪽만 싹둑 잘라내는 모습이 나온다. 여성은 한쪽 눈을 뜨게 되는데 이는 이 스마트폰의 탁월한 동영상 촬영 능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LG전자는 이날 티저 영상과 함께 제품의 모습 일부가 담긴 파일도 함께 공개했는데 앞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으로 보인다.

옆면은 메탈로 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화면 크기는 5.7인치로 전형적인 패블릿(대화면폰)에 속한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정체성으로 통하는 '후면 조작키'를 비롯해 '분리형 배터리' 방식은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스마트폰 신제품 정보로 유명한 트위터리안 이브이리크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LG전자 신제품 'V10'(가칭)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해당 이미지에는 메탈 프레임 적용과 듀얼카메라, 뒷면에는 우레탄 등의 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G전자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FIC 컨벤션홀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를 진행하며 같은 날 미국 뉴욕에서도 진행한다. 조준호 LG전자 MC사업본부장(사장)은 주요 임원과 함께 서울 행사에 참석해 제품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D, 추석 맞아 '사랑나눔' 활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찾아

LG디스플레이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LG디스플레이 정철동 부사장(CPO), 김상돈 전무(CFO), 권동섭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경협의회위원들과 임직원 80여명은 24일 경기도 파주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후 내내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어울려 빨갛게 잘 익은 고추를 수확하고 포장하며,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봉사 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한 USR(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노경 스킨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의 소외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CPO 부사장(왼쪽)과 권동섭 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24일 경기도 파주 사업장 인근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교남어유지동산을 찾아 고추 수확을 돕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노동조합 역시 2014년 USR 발대식을 갖고, 활동 주체를 노동조합 간부에서 현장사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

LG '올레드 TV' 23개국 주요 공항서 만난다

39곳에 200여대 설치

LG전자가 세계 각국의 주요 관문에 올레드 TV를 설치해 프리미엄 TV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다.

LG전자는 이달 들어 미국 뉴욕 JFK 공항, 유럽의 관문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러시아 쉐르메체보 공항 등 23개국 39개 주요 공항에 올레드 TV를 설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LG전자는 국내 8개 공항을 포함해 10월 말까지 23개국 39개 공항에 200여 대의 올레드 TV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공항 이용객들이 비교적 오래 체류하는 탑승 게이트 부근, VIP 라운지 등에 올레드 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압도적인 화질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용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LG 올레드 TV 1,2,3: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LG전자 올레드 TV(55EC9310).

공항 이용객들은 올레드 TV의 정면, 측면, 후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TV를 볼 수 있어 5㎜대 두께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기존 LCD TV와 달리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색이 왜곡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함께 보는 공항 TV로도 제격이다.

이인규 LG전자 TV/모니터 사업부장(전무)는 "세계 각국의 주요 공항에 차원이 다른 올레드 TV를 설치해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게임업계, 추석 맞이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추석을 맞아 국내 게임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넷마블게임즈와 넥슨,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등은 자사의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션을 진행하거나 희귀 아이템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오는 10월 7일까지 모바일RPG '레이븐 with NAVER'의 이벤트 던전 '추석 탐험'을 연다. 총 1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이 던전은 각 단계별로 모험 완료 시 추석 한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규 장비 '서리 무기' 등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

국민 모바일 RPG '몬스터 길들이기'는 오는 10월 6일까지 게임과 관련된 퍼즐을 풀어나가는 추석 이벤트 던전을 열고, 미션 완료 시 7성 몬스터, 골드, 열쇠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물한다. 또 다른 인기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도 오는 30일까지 '추석 대박 이벤트'를 연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신작 모바일 게임 3종에 대한 특별 이벤트를 벌인다. 웰메이드 모바일 액션 RPG '러스티블러드'와 영웅조합 버프액션 '시간탐험대', 삼국 영웅 트레이드 RPG '삼국전투기' 등에서 추석맞이 이벤트를 연다.

/양성운 기자

LG CNS, 말련 택배사에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LG CNS는 최근 말레이시아 1위 택배사인 포스라쥬(PosLaju)의 우편물류 집중처리센터(IPC)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운영되던 포스라쥬 물류센터에 LG CNS는 자동화된 물류허브센터를 구축, IT 솔루션을 포함한 소터 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LG CNS 관계자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포스라쥬 택배 물량을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없어지면서 LG CNS가 물류허브센터 구축에 돌입했고, 올해 2월부터 시범 가동해 3개월 만에 2017년 예상 물동량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포스라쥬 물류허브센터의 중앙 전경. 대형 소터에서 규격이 큰 화물들이 자동 분류되고 있다. /LG CNS 제공

구축된 자동화 설비는 고객들의 사용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계한 뒤 이에 기반해 물류 설비를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형식이다. 이후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LG CNS는 말레이시아의 택배 시장 특성을 반영해 ▲약 1mm 두께의 봉투 화물까지 자동 분류하고 ▲ 미리 요금이 부과돼 있는 택배 봉투를 통해 발송하는 경우에 수기로 작성된 우편번호를 자동 인식해 분류하는 등 특화된 기술을 적용했다. 또 ▲현장 작업자들의 화물 이동 동선을 줄이고 ▲작업자 별 처리 화물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레이아웃을 설계했다.

이번 포스라쥬 물류센터 구축을 바탕으로 LG CNS는 향후 국내외 하이엔드 소터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물류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SK하이닉스, 그룹 캐시카우 역할 톡톡

시장 불안에도 안정적 성장
3분기 영업익 1조4000억 전망
최태원 회장 인수 결단 조명

메모리반도체의 '강자' SK하이닉스가 불안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에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조5890억원, 1조3750억원이었다.

최근 D램 가격 하락 등 반도체 업계의 경영 악화가 우려됐으나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당초 전망을 넘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 매출 비중 확대로 PC D램 가격 하락의 충격을 완화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호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SK하이닉스 제공

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D램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요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D램산업은 제조사들의 공급 조절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재고 이슈와 수요약세로 가격하락폭이 확대된 PC D램 공급도 줄이고 있어 3분기 이후 PC D램가격 하락 폭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제품 경쟁력 강화와 영향력 확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 지난달 경기도 이천에 준공한 M14에서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총 15조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올해 말 월 3000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춘 뒤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 SK하이닉스는 M14 이외에 31조원을 더 투자해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두 개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1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으로 SK에 인수된 이후 그룹의 '캐시카우'로 성장하고 있다. 당시 그룹 내 일부 경영진의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인수를 강하게 밀어 붙였던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또 파업리스크… 올 영업실적 '깜깜'

추석 전 임금 잠정합의 실패
현대차 노조 3일간 연속파업
해외 판매감소 겹쳐 이중고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의 추석 전 잠정합의에 실패하면서 파업 사태를 맞고 있다. 국내외 판매감소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24일 이틀째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노조는 25일에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2일까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 등에서 의견이 갈려 4년 만의 무파업 타결과 추석 전 타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공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흘간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300만원 △무파업 시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측은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65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의 사흘 연속 파업으로 회사는 차량 1만여대, 매출차질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파업 행보는 글로벌 판매 실적 악화와 맞물려 어려움을 가중하는 형국이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314만338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323만5494대 대비 2.8%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국내 판매는 45만4217대에서 44만7134대로 1.6% 줄었다.

업계에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둔화와,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와중에 현대차는 해외 판매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현대차는 중국에서 7만146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한 규모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사회적, 국민적 비난이 명백한 요구를 회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회사가 이미 상당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를 결단했다. 혼란을 매듭짓고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소외 이웃에게 힘 되는 기업 될 것"

조현상 효성 부사장
경로당서 나눔 행사

효성이 2012년부터 맺어온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의 인연이 올해 민족 대명절 추석에도 이어졌다.

효성 산업자재PG 임직원들은 2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경로당 두 곳을 방문해 나눔 행사에 나섰다.

이곳에서 효성 임직원들은 송편 빚기를 비롯해 투호 등 전통놀이를 함께 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산업자재PG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소봉사활동을 해왔던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의 인연이 시작이었다.

조현상 산업자재PG장(부사장·사진)은 "효성은 어르신들이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온정 넘치는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움과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효성 산업자재PG는 서울시 후암동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집'에서도 2012년부터 매월 식사 도우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 '함께하는 체육대회'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개최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효성은 산업자재PG 뿐만 아니라 전사 차원에서 추석을 맞아 마포구 취약계층 이웃들과 생필품을 나누는 활동을 14일 진행했다.

경남 창원공장과 울산공장 등 지방 사업장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에게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추석맞이 이웃돕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박삼구의 그룹재건 '타이어 노조'가 발목 잡나

36일간 파업 1500억 매출 손실
상반기 이어 3분기도 '적신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재건에 금호타이어가 다시 발목을 잡을 것인지 주목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4일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을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7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룹재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인수까지 이뤄지면 2009년 해체된 그룹재건이 완성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 회장과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은 5.22%다. 이밖에 금호고속(0.71%), 아시아나IDT(0.30%), 아시아나에어포트(0.11%),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2.77%)의 지분을 더하면 총 9.11%를 확보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 전시된 금호타이어의 '와트런' 제품 /금호타이어 제공

우리은행, 산업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42% 가량의 지분을 매입해야 박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양축으로 하는 그룹재건을 이룰 수 있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재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공들였던 금호타이어는 현재 '노동조합 리스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6일간의 전면파업과 16일간의 직장폐쇄로 금호타이어가 입은 매출손실은 15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금호타이어 매출(1조5389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용기 기자 yonggi@

현대차그룹 '에너지 절감' 상생협력 팔 걷어

32개 협력사와 기술 교류회

현대자동차그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연구소에서 '2015 협력사 에너지 절감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덕양산업,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유라코퍼레이션, 성우하이텍, 핸즈코퍼레이션 등 총 32개 협력사와 그룹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분석·평가 기술, 친환경 건축·요소기술,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주요 이슈,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술들을 전문기술 업체의 집중분석과 진단을 통해 에너지 절감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정용기 기자

한화, 서울세계불꽃축제 한류로 자리매김

내달 3일, 올해 13회째 개최… 100만 인파 한자리
80분 동안 불꽃 10만발 한강공원 밤하늘 수 놓아

한화그룹을 말하면 열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화가 매년 펼치는 불꽃축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올해 13번째를 맞는 201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10월 3일 열린다.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10만여발의 불꽃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 시작한 한화그룹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한화와 SBS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4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불꽃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필리핀 등 3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가해 다채롭고 아름다운 불꽃을 가을하늘에 발사할 계획이다.

오후 8시 불꽃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대한민국 대표 한화는 '마법 같은 불꽃'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올해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도 불꽃바지선을 설치, 여의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불꽃쇼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올해도 주최측과 서울시, 경찰, 소방서, 구청, 한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안전한 행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극심한 혼잡지역인 여의동로는 행사 당일 오후 2시에서 9시 30분까지 통제한다.

행사 전날인 10월 2일 오후 11시부터 63빌딩 앞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도 폐쇄한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지하철 운행량은 대폭 증편된다.

경찰, 소방, 주최측 인력이 총동원돼 지하철 시민 안전에 투입된다.

60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화그룹 봉사단은 안전관리와 함께, 행사 후 관람객들과 쓰레기 모으기 캠페인과 쓰레기수거 활동을 벌인다.

라디오(마포FM 100.7MHZ)를 통한 생방송도 진행돼 현장감 있는 음악과 함께 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

한화불꽃축제 공식홈페이지(www.hanwhafireworks.com)에서는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실시간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행사를 더 알차고 즐겁게 즐기려면 공식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행사내용 △버스우회정보 △통제구간 △행사장 화장실 위치 △두꺼운 겉옷과 깔개(돗자리) 등 기본준비사항 △명당 찾기 △Q&A △필수공지사항 등 관람객이 미리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이 가득하다.

공식홈페이지에서는 10월 1일까지 불꽃축제 관람권 800장, 모바일 커피 교환권 1000장 등의 경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꽃마을 영상을 감상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등에 공유하면 당첨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SKT,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IHQ 매각 불발

SK텔레콤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인수한다.

SK텔레콤과 SK플래닛은 2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SK플래닛이 보유한 SK컴즈 보유 지분 전량(64.5%)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SK플래닛은 지난 8월 IHQ와 SK컴즈 지분 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IHQ가 계약 사전 조건인 채권단 동의를 받지 못함에 따라 IHQ로의 매각이 불발됐다.

SK플래닛은 SK컴즈 주식 약 2800만주 가운데 약 2650만주(61.08%·약 1954억원)를 현물배당 방식으로, 나머지 약 150만주(3.47%·111억 원)를 주식 양수도 계약 방식으로 SK텔레콤에 이관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지분 인수로 SK컴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지분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 활동의 안정적 토대를 갖추게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컴즈가 그동안 유무선 인터넷분야에서 축적해온 3C (콘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영역에서의 높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SK텔레콤이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플랫폼 사업에서 양사간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KT "데이터 룰렛으로 1GB까지 혜택 받으세요"

KT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GB의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이터 룰렛' 서비스를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룰렛은 월말에 데이터가 부족한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올레 멤버십 1800포인트를 차감해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결과에 따라 LTE 데이터 100MB(메가바이트)부터 1GB(기가바이트)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된 데이터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응모 시 선택한 회선에 자동 등록된다. 또 등록된 데이터는 월말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다음 달 말일까지 여유롭게 이용가능하다.

데이터 룰렛은 올레닷컴(olleh.com, 웹·모바일)과 올레 모바일 고객센터 앱에서 회선별 월 1회 응모할 수 있다. 9월부터 총 4개월 간 청소년, 선불 등 일부 요금제를 제외한 LTE 단말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참여 가능하다. /정문경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내달 출범

언론단체 등 15곳 포함 출범 동시 본격활동 돌입
언론계·정치권 등 일각서 '이해당사자들 구성' 논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에서 심재철 한국언론학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합의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게 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총 15개 단체가 포함되며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뉴스제휴평가위 구성을 위한 예비 모임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에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 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언론과 어뷰징을 막자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주된 명분이다. 하지만 유력 일간지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이 어뷰징 기사를 양산하거나, 협찬을 앞세워 광고를 유치하는 등의 행태로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광고주협회가 발표한 유사언론에 주요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등이 유사언론에 이름을 올려 이 같은 논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라는 언론계의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홍보업계 한 고위 임원은 "사실 일각에서 유사언론을 내세워 제휴평가위원회를 주장하지만 실제 유력언론사들의 무리한 협찬 요구가 유사언론의 푼돈 요구보다 더 무섭다"며 "동네 양아치 몰아내고 나혼자 독식하자고 조폭이 설치는 모습과 다른게 없다"고 고심을 토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뉴스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지닐 수 있고, 현재까지 논의 과정을 볼 때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평가위원회의 영향력이 개별 언론사들의 생존 기반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생태계에서는 두 포털의 뉴스·검색 서비스에 '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직결된다.

현재 뉴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신문협회는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유사언론' 행태를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온신협은 사실상 신문협회와 행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언론학과 교수는 "이익을 위한 협박용 기사를 만들어 무기로 쓴다는 점에서 매달 포럼 명목으로 대기업들에게 광고를 요구하는 주요 언론이 지적하는 사이비언론 행위는 도긴개긴이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관련株 고공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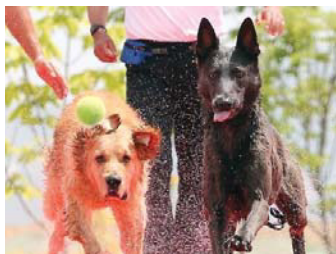
'애완'에서 '가족'으로 사료·의료 시장 급성장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증권 시장에서 동물 사료와 의료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가정에서 기존 동물에 대한 개념이 '애완'을 넘어 '가족'으로 바뀌는 데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밝아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

22일 코스닥시장에서 가축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씨티씨바이오는 전일 대비 2.12%(400원) 오른 1만9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티씨바이오는 항생제와 해열제 등 동물약품을 국내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 들어 씨티씨바이오는 현재까지 12.57% 상승했다.

특히 이달 들어 반려동물 관련주들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백신 업체인 제일바이오는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32.4% 오른 5680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파루와 중앙백신도 각각 13.57%, 11.52%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 반려동물 관련주가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프리미엄 사료를 유통하는 이-글 벳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이-글 벳 주가는 7300원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무려 75.69%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23.72% 올랐다.

이-글 벳의 반려동물 사업부는 2002년 설립돼 미국, 캐나다 업체로부터 사료, 간식 등 관련 제품들을 들여와 유통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6%에 달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가구 소득수준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반려동물 시장 성장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반려동물 시장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애완동물이던 시각 자체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로 변화하면서 프리미엄 사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글 벳의 반려동물 사업부 매출은 2014년 76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으로, 2016년에는 157억원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NHERI)와 현대증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2년 9000억원에서 2015년 1조8000억원으로 2배로 성장할 전망이다. 오는 2020년에는 5조원을 넘어 6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들도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성을 인식하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프레시'와 '오네이처'라는 프리미엄 펫 푸드를 출시했다. 동원F&B는 '뉴트리플랜', 롯데네슬레코리아는 '퓨리나'라는 상품으로 경쟁에 나섰다. 사조산업은 '사조 로하이 캣푸드', 이마트는 '엠엠도그'라는 고급 사료를 판매 중이다.

사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사업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KT는 집에 혼자 남겨진 반려동물이 심심하지 않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애완전용 '도그TV' 서비스를 송출하고 있다. 아울러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기 위한 CCTV 상품도 출시됐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맘카2' 서비스를 선보였다.

김영각 현대증권 연구원은 "반려동물 시장은 20~30대의 1인 가구 증가, 연금을 받아 경제력이 있는 노인인구 증가, 결혼했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시각장애인에 전자도서 전달 미래에셋증권 감사실, 컴플라이언스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내부통제부서 60여명으로 구성된 '감사하는 봉사단'은 지난 3개월 간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도서 50여권을 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로 제작해 24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수' 힘입어 강보합 마감

코스피지수가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강보합 마감했다.

2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6포인트(0.13%) 상승한 1947.10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890억원, 961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383억원을 내던졌다.

업종별로는 상승업종이 우세했다. 의료정밀, 운수창고, 화학 등이 1%대 상승했고 종이목재, 기계, 전기전자 등은 0~1% 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64%), 한국전력(1.04%), 삼성물산(0.34%) 등이 오른 반면 삼성전자(-0.44%), SK하이닉스(-2.45%), 삼성SDS(-0.36%)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0 포인트(0.53%) 상승한 683.88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이 38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2억원, 36억원 순매도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원30전 상승한 1192원50전에 거래를 마쳤다. /김보배 기자

"개혁은 진행 중… 결과는 고객이 판단"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 페북서 "연임 의사 없다" 밝혀

"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고 그 판단은 고객이 한다."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는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안 됐다고 말하려면 내가 연임할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며 "이미 지난 봄에, 그리고 6월에 한 번 더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내년 3월 말까지 하고 물러나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그동안 매도 리포트 확대를 비롯해 매매 실적에 근거한 개인 성과급 제도 폐지, 고위험등급 주식 선정 발표, 편집국 도입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참신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업계 전체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아간다'는 비난이 엇갈렸다.

'일방통행'식 개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주 대표는 "우리가 추진하는 혁신은 한국 증권사에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추진하려면 누군가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직원을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강도가 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봉에 불만을 가졌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재작년 대량 감원을 할 때 감원 수를 줄이는 대신 직원 고정급을 10% 삭감했고 미안한 마음에 6개월 전 계약했던 내 연봉을 내가 내 손으로 30% 깎았다"고 밝혔다. 스스로 깎은 것이기에 불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의 새 대표이사로 여승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 부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11월5일 여의도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여 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여 부사장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차기태 기자 folium@

신한금투 'TLC 3기 실전투자대회' 개최

신한금융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시스템 트레이딩 플랫폼 'TradeStation' 사용자를 위한 'TradeStation Leader's Club(TLC) 3기 실전투자대회'를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TLC 투자대회'는 국내주식, 선물, 옵션 및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해외선물 등을 대상으로 실전투자를 펼쳐 수익금액을 겨루는 대회다. 매매요건을 충족한 계좌 중 월간 최고수익을 실현한 참가자에게는 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최대 3회 한도). 또한 수익률과 손실관리가 뛰어난 참가자에게는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인큐베이팅 펀드'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TLC 3기 대회는 'TradeStation 9.5'를 이용중인 투자자 가운데 1억 이상의 잔고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기간 동안 'TradeStation 9.5'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유선전화(02-3772-3778)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TradeStation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배 기자

직접금융 조달, 전월比 40%↓

주식 19.2%·회사채 41.3%로 발행규모 크게 감소

기업들이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액은 8조5819억원으로 전월(14조1649억원) 대비 39.4% 감소했다.

우선 주식 발행 규모는 9968억원으로 전월(1조2342억원)보다 19.2%가 줄었다. 이 가운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9건, 1863억원으로 전월(15건, 7394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유상증자는 9건, 8105억원으로 전월(5건, 4948억원)보다 건수와 발행총액 모두 증가했다. 특히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각각 4142억원, 1000억원씩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7조5851억원으로 지난달(12조9307억원)보다 41.3%나 줄었다.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ABS), 은행채 등 모든 유형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8월 BNK캐피탈 사태 등에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회사채를 발행한 주요 기업은 신한은행(5768억원), GS리테일(4000억원), 하나은행(4000억원), SK하이닉스(3500억원) 등으로 금융회사와 소매업회사가 주를 이뤘다.

일반회사채는 24건, 2조6400억원으로 전부 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로 나타났다. 금융채 발행은 2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9.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은행채는 1조7168억원으로 30.7% 줄었다.

한편 지난달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은 116조9962억원으로 전달보다 0.1%(1123억원)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CP와 전단채 잔액은 163조9363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9.0%(13조4천828억원) 늘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KB금융, '은행·증권·손보·생보' 복합점포 개설 24일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KB금융그룹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복합점포 개점행사에 참여한 임직원이 케익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홍 KB금융지주 전무, 이오성 KB국민은행 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사장, 김병헌 KB손해보험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신용길 KB생명보험 사장, 전병조 KB투자증권 사장, 이홍 KB국민은행 부행장, 김정기 KB국민은행 전무). /KB국민은행 제공

24일 서울 한강 성산대교에서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의전화기' 개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하상훈 한국자살예방센터 원장,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 이기촌 한국생명의전화 이사, 황인자 국회의원,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조근호 한국자살예방협회 위원장. /생명보험재단 제공

생보재단 'SOS생명의 전화' 추가 개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4일 서울 한강 성산대교에서 자살예방 긴급상담전화 'SOS생명의전화기'를 개통했다.

'SOS생명의전화'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마지막 전화통화를 유도해 마음을 돌리도록 하거나 자살시도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119 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는 전화기다.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1년 7월 마포대교와 한남대교를 시작으로 오늘 개통한 성산대교의 생명의전화기를 포함, 전국 총 16개 교량에 61대의 SOS생명의전화기를 운영하게 된다.

생명보험재단이 발표한 지난 4년간의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총 3679명에게 위기상담전화가 걸려왔으며 이중 85%에 해당하는 3129명이 상담을 통해 마음을 돌려 귀가했고, 550명은 119가 출동한 이후 귀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3679명 중 1986명(54%), 여성이 1502명(40.9%)으로 남성이 자살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내용별로는 대인관계를 가장 큰 고민거리(28.7%)로 여겼다. 이어 입시·진로문제(25.1%)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독·무력감(17.5%), 가족과의 갈등문제(14.8%)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시형 이사장은 "SOS생명의 전화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발길을 돌린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생명사랑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방산비리 수사' LIG 공모주 경쟁률 저조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LIG넥스원이 '방산비리' 수사의 영향으로 공모청약에서 다소 저조한 경쟁률로 마감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LIG넥스원의 일반투자자 공모청약 결과 최종 경쟁률은 4.74대1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5.15대1로 가장 높았고 공동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3.87대 1, 인수단으로 참여한 하나금융투자가 2.89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청약증거금도 2491억원에 그쳤다. 앞서 공모가는 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LIG넥스원은 지난 1988년 설립된 방위산업체로 휴대용 지대공 무기인 '신궁', 대잠어뢰 '홍상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등을 개발·생산·공급하고 있다.

/차기태 기자

우리은행 '우리삼성페이' 가맹점 확대

우리은행은 BC카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간편결제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통장에서 즉시 계좌결제가 가능한 '우리삼성페이'의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삼성페이는 우리은행이 지난달 은행 계좌만으로 가맹점 결제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번 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BC카드의 전국 270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우리삼성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동일한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포함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2만원 이상 가맹점 결제시 0.3% 익월 캐시백 제공, ATM수수료 추가 면제, 부동산대출 금리우대 등 부가적인 금융혜택을 준다.

/차기태 기자

보험사 해외자회사도 담보제공 가능해진다

금융위, 해외銀 신용장 개설 위한 행위 허용로

앞으로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해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해외은행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해외자회사에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4분기 중에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는 보험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영국 로이즈마켓(세계 최초 보험조합으로 개별 보험업자들이 모인 하나의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면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로이즈에 영업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업기금 납입은 현지 은행의 신용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지 은행은 이때 국내 보험사의 담보제공을 요구한다. 현재 국내 법령으로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은 허용하면서도 담보제공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전업 선물회사에도 증권회사처럼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모호했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 전업 선물사도 예탁증권 담보 신용공여의 주체인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19주간 208개 금융사를 방문해 2575건의 건의과제를 받았다.

이 가운데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101건 가운데 17건은 금융사의 건의를 수용했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19건 가운데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은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광교 호수공원 핵심상권… 배후수요 탄탄

중흥건설 '광교 중흥S-클래스' 상업시설·오피스텔 분양 돌입

중흥건설(대표 정창선)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C2블록 복합단지 '광교 중흥S-클래스' 상업시설인 '광교 어뮤즈스퀘어'와 오피스텔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광교 어뮤즈스퀘어는 전용면적 3만9660㎡, 613호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이곳은 소형상가 위주 구성으로 부담없는 투자비용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해 투자가치를 높였고 넉넉한 주차공간과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했다.

또한 동선이 600m에 달하는 카페거리를 형성해 외부로 노출된 상가의 집객력을 높였으며 대규모 스트리트형 테마거리를 형성하고 모든 층이 지상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베네치아-밀라노-나폴리'의 유럽피안 라이프를 콘셉트로 구성된다. 또 빛의 광장과 미디어 광장, 호수광장 등 3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유럽풍 조형물과 문화예술 공연장,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휴게공간도 조성된다.

광교 어뮤즈스퀘어 투시도. /중흥토건 제공

'광교 어뮤즈스퀘어'
소형 위주로 수익률 극대화
600m 카페거리로 집객력↑

'광교 레이크힐'
핵심 인프라·프리미엄 학군
강남까지 30분 생활권 가능

이와 함께 광교신도시 내 최대 규모 스파와 찜질방을 비롯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될 키즈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거용품을 판매하는 라이프 스타일샵인 모던하우스(예정) 등 이국적인 테마의 특색있는 상업시설 조성으로 상업시설의 투자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오피스텔(230실)은 '광교 중흥S-클래스' 아파트(2231가구)와 함께 2461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C2블록은 광교신도시의 핵심 인프라는 물론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산 조망 프리미엄에 학군까지 갖추고 있다.

광교호수공원 북서쪽에 자리해 탁월한 조망권과 광교신도시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오피스텔 일부는 테라스하우스로 조성해 호수공원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은 동수원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쉽고 용인-서울고속도로도 가깝다. M버스를 통해 서울 강남이나 서울역, 광화문 등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내년 2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중앙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한 역세권 단지다. 개통 시 강남역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초·중·고교가 모두 단지 인근에 있고 에듀타운과도 인접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매원초등학교와 다산중학교, 연무중학교, 광교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의구초등학교(2018년 하반기 개교 예정)도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신청사와 컨벤션센터, 호텔, 프리미엄아울렛 등이 들어설 예정인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광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오피스텔 분양은 24일과 25일 이틀간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은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100만원(전 타입 공통)이다. 중도금 5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사업지 현장인 광교신도시 C2블록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9년 5월 예정이다.

분양 문의 : 031-216-6900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한화건설 임직원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한화건설, 복지관서 '송편 빚기' 봉사

소외층에 추석음식 전달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지난 15일부터 꿈에그린 도서관 지원 6개 기관을 찾아 임직원 100여 명이 릴레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건설 일부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편 만들기'를 했다.

행사에는 최광호 한화건설 최광호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 관원들과 함께 송편과 절편, 전 등의 추석 음식을 만들어 인근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박상길 기자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소폭 확대

지난주보다 0.01%p 늘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소폭 확대됐다.

24일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0.13%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지난주 0.19%보다 높은 0.22% 상승했고 경기도는 지난주 0.13%에서 0.15%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절반 하락했다.

지방은 0.09%로 지난주 0.10%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충북이 0.03%, 충남 0.02%, 세종시 0.01% 등 매매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상길 기자

건설사, 추석 연휴에도 고객 모시기 '안간힘'

추석날 빼고 홍보관 '풀가동'
전통놀이·황금열쇠 추첨 등
가족단위 방문객 유치 힘써

건설사들이 추석연휴에도 견본주택과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고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추석 전통 놀이와 함께 포토존 이벤트도 펼친다.

이번 추석은 유독 짧은 연휴 탓에 귀성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많아 집객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 탓에 방문하지 못하는 3040세대들이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부모님이나 자녀를 동반하고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6800가구 규모로 분양하는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에서는 추석연휴기간 현장전망대를 방문한 고객에게 포토존 이벤트와 민속놀이 등의 이벤트를 제공한다. 보름달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는 현장전망대에서 마련한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윷놀이와 투호놀이, 왕제기 차기 등과 즐길거리가 동시에 제공된다. 현장전망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858-1번지 일원에 마련돼 있다.

효성·진흥기업이 10월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B2블록에서 분양하는 별내신도시 최초 테라스하우스인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도 분양에 앞서 현재 사전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홍보관 위치는 경기 남양주 별내동 1006-3번지 이레타워 7층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18개 동으로 이뤄지며 307가구 모두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제일건설이 최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 중인 '가정 4BL 제일풍경채'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견본주택이 운영되며 28일부터 29일까지 황금 열쇠 증정 이벤트를 벌인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으로 900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74·84㎡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금강주택은 경기도 군포시 송정지구 B-1BL에 공급하는 '군포 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을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열고 방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으로 이뤄진다. 전용면적 별로는 74㎡ 442가구, 84A㎡ 156가구, 84B㎡ 60가구 658가구의 중소형 단지다.

현대건설이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대에 분양중인 '힐스테이트 당진 2차'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견본주택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6~27층 전체 17개동으로 당진 일대 최고 층수로 건립되며 지난해 분양한 1차(915가구)와 함께 이번 2차 분양으로 당진 내 최대규모인 2532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전용면적은 62~99㎡, 1617가구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이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추석전날인 (26일)과 당일(27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기간에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다.

힐스테이트 백련산 4차는 지하 4층~지상 최고 19층, 13개 동에 전용 59~84㎡ 963가구로 일반분양은 521가구다. 특히 3.3㎡당 평균분양가가 1410만원대로 경쟁력있게 책정됐고 중도금무이자의 금융혜택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일대 분양중인 '부천 아이파크'의 현장 홍보관도 추석 연휴기간에 개관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23개동, 1613가구(전용 59~182㎡)의 대단지다.

현재 분양가 할인과 더불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인테리어와 발코니 확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존 대비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특별분양을 진행 중이다. /박상길 기자

신세계건설, 붕괴사고 '예견된 인재'

용접 불량·관리 부실 결론 경찰, 관계자 10여명 사법처리

지난 7월 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라켓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사고 현장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정란 교수)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신세계건설이 시공, 동우이앤씨가 감리를 맡아 진행 중이다.

신축고사 현장 붕괴사고의 조사결과 작업자가 벽체 엄지말뚝과 브라켓을 연결하는 용접을 부실하게 했고 이로 인해 용접 부위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시공하중을 견디지 못해 브라켓이 탈락했다.

신세계건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상적인 시공과정을 따르면 시공자(관리자)는 브라켓 용접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 공정(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이 지하 7층으로 추락해 중상 1명, 경상 10명의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지하 5층 바닥슬래브 밑에 낙하 방지망이 설치돼 있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고 현장은 톱다운 공법으로 지하층 시공 중이었다. 지하 5층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벽체 엄지말뚝(기둥)에 용접된 철골보 지지용 브래킷의 용접부가 잘리면서 브래킷 위에 얹혀 있던 철골보가 브래킷에서 이탈했다.

이로 인해 철골보와 슬래브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2명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민간발주 공사에서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까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사고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인데다 감리자를 직접 선정하면서 감리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위는 또 공사현장 불시 현장점검 도입과 안전교육 강화, 설계도면에 시공 중 위험요소를 명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현재까지 분석한 원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건설현장의 공사관리 체계, 작업환경 등 근본적인 원인을 추가로 검토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하청 용접업체 관계자 3~4명, 감리업체·시공사 관계자 등을 모두 입건할 예정이다. 또 이 가운데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기관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받아 분석, 사고 원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된 '용접 불량'을 지적한 바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농심 '짜왕' 미국서도 '후끈'

美 월마트·코스트코 등 메이저 유통사 입점 확대 TV·라디오·신문 광고도

농심(사장 박준)은 24일 짜왕을 미국에 정식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1만5000박스를 처음 선적했으며 초도 물량이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문이 잇따라 같은 양을 추가 선적했다.

농심은 영문명 'ZHA WANG'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동부 뉴욕지역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짜왕의 미국 진출에는 입소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역할이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출시 직후 입소문을 타고 짜왕 구매열풍이 일면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과 교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미국의 한인마켓에서는 짜왕 입점 문의가 쇄도했다.

농심은 이번 짜왕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월마트 입점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2013년 업계 최초로 월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농심은 월마트와 함께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미국의 대표 메이저 유통사로 입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미국 진출을 계기로 내달부터 TV와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짜왕 광고를 시작한다. SNS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전개할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CJ, 한국 고유 '김치 유산균' 중국 시장 공략

中 홈쇼핑 론칭 방송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한국전통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을 중국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먼저 홈쇼핑을 통해 BYO 피부유산균 CJLP133의 중국 진출을 시작한다. 이날 중국 동방CJ 홈쇼핑에서 BYO 피부유산균 CJLP133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

CJ제일제당은 홈쇼핑 론칭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판매경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중국 주요 온라인 몰과 홍콩지역 내 헬스&뷰티 전문 스토어인 왓슨스(Watsons)에 제품이 입점 된다. 또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육아용품점에도 제품을 입점하고 상해, 광저우 등으로 제품 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할인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까지 확장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5년 내 피부 유산균을 매출 3000억원대 브랜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한정엽 CJ제일제당 건강마케팅담당 총괄부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 제품을 출시해 차별화된 기능성을 가진 김치유산균이 세계적인 유산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송편 모둠전' 할인 판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이달 26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추석 대표 제수 음식인 송편·한과·모둠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쌀로 빚은 백송편·쑥송편(500g)은 각각 3900원, 모둠전은 100g당 20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신동빈 사재 100억 들인 '롯데문화재단' 출범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롯데문화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문화재단의 주요 활동은 내년 하반기 송파구 석촌동 잠실 롯데월드몰 8~10층에 개관예정인 롯데콘서트홀의 운영과 함께 문화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이다.

이사장은 신동빈 회장이 맡았다.

롯데百, 추석기간 전점서 최대 80% 할인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추석 연휴를 맞아 25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당일(27일)을 제외한 5일간 롯데아울렛 16개 전점에서 할인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에서는 나들이 고객들을 위한 가을 상품 할인을 진행한다.

현대百 판교점, 역대 최대 레고 전시회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판교점 10층 문화홀에서 '2015 브릭 코리아 컨벤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컨벤션은 브릭랜드(회원수 약 3만9000명), 브릭인사이드(회원수 약 2만5000명), 브릭스월드(약 2만2000명), 클리앙 레고당(약 1200명) 등 국내 주요 레고 동호회와 함께 진행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라이프스타일형 아웃도어 재킷

기능성 더하고 스타일 살리고

고어텍스·윈드스토퍼 등 고기능성 자체개발 소재

슬림핏·절개패턴 강조 내피·외피 활용성 돋보여

가을겨울 시즌 도심에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기능성이 강화된 라이프스타일형 아웃도어가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LF(대표 구본걸·오규식)의 라푸마는 가을겨울 시즌 기존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등의 고기능성 소재뿐만 아니라 브랜드 자체 개발 첨단 소재 비중을 지난해 보다 늘려 스타일과 더불어 기능적 측면을 강화했다.

소재는 터치감이 부드러운 고기능성과 예년에 비해 원단 겉 표면의 질감을 살린 것을 주로 사용해 캐주얼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특히 방풍 재킷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수입 나일론 리브-스토퍼 방풍 소재를 사용해 매우 얇고 부드러운 터치감을 제공하며 기모 안감으로 초가을부터 초겨울까지도 착용하기 좋다.

다크 그레이, 다크 카키, 라이트 네이비 3가지로 선보이며 가격은 18만원이다.

블랙야크(대표 강태선)의 트리플 재킷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쌀쌀한 날씨에 체온유지가 될 수 있는 3-IN-1 겹재킷의 제품이다.

겹겹이 입은 옷들이 부담스러운 오피스족이나 외근이 많은 영업맨, 아웃도어 활동으로 실시간 체내 온도가 변하는 아웃도어족들에게도 상황에 따라 내피와 외피만 따로 혹은 같이 입어 3가지 스타일을 연출 할 수 있어 유용하다.

디자인과 기능 역시 놓치지 않았다. 야크를 모티브로 한 외피재킷은 곳곳에 디테일하게 주머니를 접목시켜 실용성과 멋을 살렸다.

색상은 짙은 회색(내피 겨자색)과 짙은 파랑(내피 짙은 남색) 2가지이며, 외피와 내피가 각각 다른 색상으로 구성돼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을 수 있다.

또 윈드스토퍼 언라인드 기술을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방풍 기능이 우수해 갑작스러운 바람에도 끄떡없다. 트리플 재킷 내피에는 자체 개발소재인 야크패딩(천연 야크털)이 경량 패딩형태로 들어가 있다. 덕분에 보온력을 높여줘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다. 가격은 44만원이다. 노스페이스(대표 성기학)가 F/W에 선보인 VX 슬림 2 재킷(VX SLIM 2 JACKET)은 밀착되는 슬림 핏과 입체적인 절개 패턴을 적용해 활동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킷 전면 상하부에 직각으로 배치된 패딩 구조와 촘촘한 퀼팅 라인은 액티브한 느낌을 준다. 남성용은 블랙, 잉크 블루, 그레이시 베이지, 플레임 오렌지 등 9가지다. 여성용도 블랙, 코랄 핑크, 딥 퍼플, 옐로우 라임 등 9가지다. 가격은 17만 원이다.

올 시즌 새롭게 선보인 VX 맥머도 파카는 후드에 풍성한 퍼를 적용하고 엉덩이를 덮는 길이감으로 보온력을 강화했다. 남성용은 블랙, 차콜, 잉크 블루 등 5가지이며 여성용은 레드, 블랙, 잉크 블루 등 4가지다. 37만원이다.

엠리밋(대표 한철호)의 아웃도어 브랜드 몽블랑 고어 재킷은 투습·방수 기능이 탁월한 고어텍스 2레이어 라미네이팅 소재가 적용됐다. 외부 습기와 빗방울은 막아주고 내부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준다. 차분한 투톤 컬러가 세련된 느낌을 주며 팔 부분의 와펜과 지퍼에 웰딩 디테일을 적용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줬다.

블랙야크 전속모델인 조인성이 트리플 재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블랙야크 제공

고어 재킷 구매 시 내피 재킷이 사은품으로 제공돼 함께 걸치거나 재킷 또는 내피를 따로 착용하면되는 등 활용도가 높다.

내피 재킷은 심플한 컬러에 기하학적 자수 퀼팅이 더해져 일상에서도 착용하기에 멋스럽다.

남성용은 블루, 블랙 두 가지 색상이며 여성용은 브라운과 다크 퍼플 두 가지다. 가격은 각각 35만5000원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일상에서도 활동적이고 가볍게… '쉴드테크 재킷'

스폰지본딩 기법 적용 보온성·경량성 뛰어나

일상생활에서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쉴드테크 재킷이 주목받고 있다.

쉴드테크 재킷은 보온성, 경량성을 높여주는 스폰지본딩 기법을 적용한 재킷으로 워킹, 러닝 등 체온 변화가 많은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에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착용하는 후드집업으로 활용도가 높다.

스폰지본딩 기법을 적용, 원단에 스폰지를 덧대는 기술로 원단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보온성을 향상시키며 원단의 볼륨감과 쿠션감을 살려줘 더욱 편안한 촉감을 제공해 준다. 빛을 반사하는 3M 재귀반사 소재를 지퍼, 로고 등에 적용해 야간 워킹이나 러닝 등의 활동에 좋다.

LS네트웍스(대표 김승동)의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은 최근 가을철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트레킹 방수

K2 쉴드테크 재킷(왼쪽)·유니온 방수재킷. /K2 제공

자켓 '쉴드'를 출시했다. 방수 기능과 투습력을 갖춘 쉴드는 활동성을 고려해 입체 패턴이 적용됐고 메쉬 소재의 안감으로 통풍성을 더했다. 휴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체스트 포켓은 실용적이다.

몽벨은 방수 재킷 전용 패커블 백을 제공해 입지 않을 때 다른 소지품에 물이 묻지 않게 보관할 수 있다. 남성용은 파슬·다크 카키·미드나이트 등 3종이며 여성용은 파슬·러스트·미드나이트 등 3종으로 선보였다. 가격은 25만원이다.

몽벨은 이외에도 가벼우면서도 따뜻해 겨울부터 초봄까지 입을 수 있는 UL(울트라 라이트·Ultra-Light) 다운 시리즈를 출시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는 스폰지본딩 기법이 적용돼 워킹뿐만 아니라 가벼운 야외활동 및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편안하고 몸을 보호해주는 '쉴드테크 재킷'을 선보였다.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 베이지 3가지이며 가격은 12만9000원이다. K2는 이와 함께 방수재킷과 고어텍스 2레이어 소재를 적용한 고어재킷도 출시했다.

남성용 '유니온 방수재킷'과 여성용 '유니티 방수 재킷'은 코팅된 방수 멤브레인 필름에 발수 가공 처리를 결합한 아쿠아벤트 소재를 적용했다. 몸에서 발생하는 땀과 재킷 안팎의 온도 차로 인해 생긴 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산행 시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해도 늘 처음 입는 듯 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

여성용은 재킷 하단에 하운드투스 패턴을 포인트로 적용해 여성미를 강조했다. 가격은 모두 31만9000원이다. /박상길 기자

비피더스에 열대과일 '풍덩'

푸르밀

'비피더스 망고&코코넛' 출시 라인업 강화 브랜드 입지 다져

최근 식품업계에 열대과일 망고와 코코넛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37년 전통의 유제품전문기업 푸르밀(구 롯데우유)은 망고와 코코넛 열풍에 발맞춰 주력브랜드인 '비피더스'의 신제품으로 '비피더스 망고&코코넛'을 24일 출시했다.

비피더스 망고&코코넛은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망고, 코코넛에 변비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비피더스가 더해진 프리미엄 요구르트이다.

올해 출시 20주년을 맞은 비피더스는 이번 신제품으로 비피더스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 국내 대표유산균 발효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푸르밀 관계자는 "비피더스 망고&코코넛은 코코넛의 영양과 신선한 망고과즙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라며 "웰빙과 트렌드에 민감한 20~40대 여성들의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푸르밀 '비피더스 망고&코코넛'은 할인점과 슈퍼에서 만날 수 있다.

할인점 기준 권장 소비자 가격은 140㎖ 8개에 4380원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민관 협력 대학생 '반값 기숙사' 첫 삽

장학재단

교육부·전국은행연합회 맞손 삼송지구 학생복지센터 착공

한국장학재단 기숙사 착공식 테이프커팅.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장학재단 3개 기관은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정과제(대학기숙사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의 일환으로 고양시 삼송지구에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은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고통 받는 대학생 주거문제를 민관(교육부, 전국은행연합회의 20개 회원사,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제1호 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깊다.

교육부·기획재정부 등 다수기관이 칸막이를 제거하고 민간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20개 회원사와의 상호협업을 통해 건립부지(8090.42㎡) 확보와 건립재원(326억 원)을 기부 받아 고양시 삼송지구 내에 반값 기숙사의 첫 삽을 뜨게 됐다.

'학생종합복지센터(대학생 연합기숙사)'가 2016년 준공되면 2017년부터는 입주생들에게 현재 민자기숙사비(평균 34만원) 보다 월 19만원이 저렴한 비용(15만원 내외)으로 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치선 기자

혈자리 자극 '지압법' 일시적 완화 효과

닥터 Q&A

Q. 생활 속에서 갱년기 증상을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영철 대표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클리닉)

- 대전대학교 한의학 박사 (병리학 전공)
-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손으로 두피 지속 자극 안면홍조 개선에 도움

엄지-검지사이 눌러주면 소화불량·안구건조 완화 증상 반복땐 전문치료 필수

A.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지압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들은 성호르몬의 급감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이 원인이다. 지압법은 혈자리를 자극해 혈액과 기의 순환을 도와 무너진 신체 균형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므로 갱년기 생활에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꼽히는 안면홍조의 경우 두피를 자극하는 지압법을 활용하면 좋다. 안면홍조는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부로 체내 열이 몰려 발현된다.

손으로 두피를 지속적으로 자극해 주면 신체 상부로 몰리는 혈액과 기운을 분산시켜 증상 완화에 좋다.

손가락의 첫째 마디를 활용해 두피 정수리 부분부터 머리 아래쪽으로 이동해 가며 100회 정도 가볍게 두드리면 효과적이다. 두피 지압법은 안면홍조뿐 아니라 갱년기에 쉽게 나타나는 산발적 열감을 해소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갱년기에 상부로 열이 몰리면 소화불량을 야기하기도 한다. 음식을 얼마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쉽게 들고 자주 더부룩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평소 입도 쉽게 말라 식욕도 크게 떨어진다. 마치 감기로 열이 심하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욕이 없어 불편함을 느낀다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合谷)을 반대 손 엄지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면 도움이 된다. 합곡을 지압하면 막힌 기를 뚫어주는 효과가 있어 소화가 잘되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증진된다.

또한 기혈을 뚫어주는 합곡 지압법은 소화불량뿐 아니라 갱년기에 생길 수 있는 안구 건조, 눈의 피로 등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다양한 갱년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등을 자주 지압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흉추를 지압하면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과 동맥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 갱년기에 떨어진 오장육부의 기능과 혈액순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몸을 앞뒤로 움직여 등에 가벼운 자극을 주는 동작을 하루 20회 이상씩 반복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압법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임시방편적 방법이다.

따라서 같은 증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전문적 치료는 증상이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갱년기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갱년기 증상들은 한약 치료를 통해 근본적 치료가 가능하다. 한약을 통해 무너진 신체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은 황춘탕(黃春湯)으로 육계(계피)와 황련을 주재료로 한다. 육계와 황련은 신체의 뜨거운 기운과 찬 기운을 조화롭게 조절하는 기능을 해 부조화를 이룬 신체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나노생한약의 한 종류인 황춘탕은 약재 입자가 매우 미세해 흡수율이 높고 치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효과적으로 갱년기를 치료할 수 있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도심 속에서 누리는 만추의 낭만

스탠포드 호텔

11월 30일까지 '폴링 인 러브' 지친 일상 위한 힐링 패키지

스탠포드호텔(총지배인 왕창근)은 11월 30일까지 여름 내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falling in love' 가을패키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패키지는 PKG 시리즈로 제공된다. PKG- A는 객실 1박과 함께 더블 또는 트윈 룸주니어스위트룸 1박 조식 뷔페 2인, 와인 + 치즈 플레이트, 수영장과 사우나 2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PKG- B는 객실 1박과 함께 주니어스위트룸 1박 조식 뷔페 2인 , 와인 + 치즈 플레이트, 수영장과 사우나 2인으로 구성됐다.

PKG-C는 객실 1박과 더블 또는 트윈 룸 , 디너 뷔페 2인, 수영장과 사우나 2인 이용이 가능하며 PKG-D는 객실 1박과 주니어스위트룸, 디너 뷔페 2인, 수영장과 사우나 2인 이용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각각 19만~23만원선 이다. (VAT별도)

스탠포드호텔 관계자는 "늦가을 도심 속 호텔에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함께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오감 만족 맛의 향연 '페어드 프로그램'

쉐라톤 인천 호텔

오후 1시부터 오전 1시까지 와인·크래프트 비어 판매

쉐라톤 인천 호텔(총 지배인 리차드 수터)은 최근 로비 바 비플랫(Bb)에서 '페어드'(Paired)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로부터 엄선된 쉐라톤 설렉션 와인, 깊은 풍미의 시원한 크래프트 맥주 그리고 매력적인 바 스낵과 오감을 만족시켜줄 스몰 플레이트 음식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만나 볼 수 있다. 가격은 1잔 기준으로 와인은 1만6000원부터, 크래프트 비어는 1만5000원부터이며 스몰 플레이트는 6000원부터다.(V.A.T. 별도)

호텔 관계자는 "다양한 취향을 가진 고객을 위해 선보이는 페어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는 만나볼 수 없었던 음식과 와인 또는 크래프트 비어의 조화와 새로운 맛을 발견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tar bag

‘대호’ 12월 개봉 확정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대호’가 오는 12월 17일 개봉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에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최민식)과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게임 홍보모델 발탁

배우 **이병헌**이 넷마블게임즈의 ‘이데아’ 홍보모델로 발탁됐다. 넷마블 측은 “이병헌의 이미지가 ‘이데아’의 게임성과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오는 11월 개봉작 ‘내부자들’로 국내 활동을 재개한다.

일본 공연 마쳐

그룹 **하이포**가 일본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하이포는 지난 22일 일본 시부야 ‘츠타야 O-이스트(TSUTAYA O-EAST)’에서 약 2시간 동안 공연을 펼쳤다. 노래, 게임, 이벤트 등으로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다.

‘슈퍼맨’ 내레이터

배우 **장현성**이 27일 방송되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석 특집편 내레이터로 합류한다. 2주년을 맞아 특별히 참여하게 됐다. 장현성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원년 멤버다.

드라마 3편 캐스팅

배우 **강구름**이 드라마 3편에 연이어 캐스팅됐다. 24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강구름이 MBC 수목극 ‘그녀는 예뻤다’에 이어 10월 방영 예정인 웹드라마 ‘달콤’, KBS 새 월화극 ‘발칙하게 고고’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변질 아닌 ‘변화’를 위한 발걸음

영화 ‘사도’ 이준익 감독

이준익(56) 감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했다. “변질되느냐 변화하느냐, 혹은 부패하느냐 발효되느냐”라는 단서와 함께 말이다. 2013년 ‘소원’을 시작으로 이준익 감독은 ‘변질’이 아닌 ‘변화’를 추구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 바로 ‘사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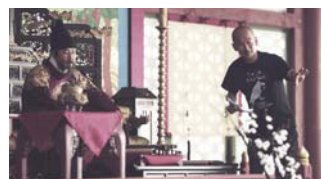
‘사도’는 조선 영조 때 일어난 임오화변을 다룬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다. 사건 자체만으로도 드라마틱한 이 이야기를 창작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이준익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소원’ 이후의 변화가 ‘사도’에도 영향을 끼쳤다.

“나는 ‘소원’ 이후로 변한 것 같아요. ‘평양성’을 마지막으로 은퇴 망동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변질돼 가는가’라는 자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변화를 모색한 것이 ‘소원’이었고요. 사건의 내면에 있는 개인의 심리와 감정에 몰입하는 것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겠다고 깨달았죠.”

이준익 감독은 “사도세자 이야기라는 소재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삶의 궤적이 변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 이야기가 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물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임오화변을 바라보게 됐다.

영화는 영조와 사도세자, 정조에 이르는 3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 이준익 감독이 택한 것은 “사도를 중심에 놓고 영조와 정조의 정치적 배경과 이념을 콘텍스트로 가득 채운 다음 아웃포커싱으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사도’가 정치 이야기를 쏙 뺐다는 이야기는 오독일 수 있다”고 했다.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이야기가 가득 차있지만 포커스를 정치에 두지 않은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원’ 이후 인물 내면에 관심
사도세자 주체적으로 바라봐
3대 이야기로 의미 살렸죠
흔들리는 삶, 실패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준익 감독이 관객이 각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화 후반부 성인이 된 정조가 등장하는 장면을 사족이라고 보는 반응에 대해서는 짐짓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도’를 구상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단지 킬링 타임의 목적으로는 만들 수 없었어요. ‘세이빙 타임’, 즉 영화를 보는 시간의 의미를 살려야 했어요.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 죽음의 가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의미가 생겨나죠. 그래서 ‘영조의 아들’인 사도로 이야기를 시작해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에 도달하고자 했어요. 정조가 지닌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의리’,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애통’을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이 영화가 가져야 할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는 시구절처럼 삶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류에 흔들리다가도 어느 순간 자리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 작품에서는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실수와 실패를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촬영을 마친 ‘동주’까지는 이준익 감독의 변화가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동주’는 저예산 흑백영화에요. 영화를 보면 ‘소원’ ‘사도’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으니까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K팝스타들이 부르는 통일

내달 ‘원케이 콘서트’ 개최
엑소·카라 등 22개팀 참여

K팝스타들이 통일콘서트로 한자리에 모인다. 다음달 9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원케이(ONE K) 콘서트’다.

‘하나된 꿈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엑소·카라·원더걸스 등 K팝을 대표하는 22개팀이 대거 참여한다.

공연 총괄 지휘는 박칼린 감독이 맡는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점차 잃어가는 분단 3세대들이 통일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47년 만들어져 70여년 간 불려온 ‘우리의 소원’을 대체할 젊은 감각의 통일 노래 ‘새시대 통일의 노래-원 드림 원 코리아(One Dream One Korea)’도 제작한다. 아이돌 스타와의 교감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목적이다. 소리바다, 멜론, 벅스, 지니 등 국내 전 음원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들을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1100여 개 시민단체와 해외동포가 중심이 된 ‘새시대 통일의노래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다. 캠페인 조직위원회 공동대회장인 이갑산 대표는 “통일은 보수와 진보 등 진영논리를 뛰어 넘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래”라며 “K팝의 감성이 담긴 새로운 통일 노래는 우리 청소년은 물론 전 세계 K팝 팬들에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조직위 홈페이지(www.1dream1korea.org) 또는 공식 페이스북(www.1dream1korea.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병호 기자

F FashionN
9월 24일 목요일 밤 9시 첫방송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오감 흔드는 아찔 곡예 '퀴담' 고별 무대

태양의 서커스, 마지막 월드투어 공연
11월1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내 빅탑

캐나다의 세계적인 서커스단 '태양의 서커스'의 공연 가운데서도 가장 예술적이라고 평가받는 '퀴담'이 20년 월드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을 찾았다.

잠실 종합운동장 내 빅탑에서 11월1일까지 공연한다.

퀴담은 그동안 5대륙 230개 도시에서 1380만명의 관객과 만났다.

1996년 초연한 퀴담은 라틴어로 '익명의 행인'이라는 뜻이다. 어린 소녀 '조'가 상상의 세계 '퀴담'에서 빠져들어간 뒤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07년 국내 초연 당시 9주 연속 예매사이트 공연 부문 1위, 2007년 연간 판매순위 1위를 기록하며 총 17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화제가 된 작품이다.

8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퀴담은 이번 월드투어를 마지막으로 20년만에 막을 내린다.

1984년 길거리 공연예술가 20명으로 시작한 '태양의 서커스'는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6대륙 300개 도시에서 1억5000만명 이상의 관객과 만나며 세계적 명성을 쌓아왔다. 지난 4월 창립자인 기 랄리베르테는 서커스단을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TPG캐피털과 중국 푸싱그룹에 매각했다.

태양의 서커스 성공 열쇠는 창립자인 기 랄리베르테의 선구적 마인드에 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열린 마음으로 재능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함께한 것이 성공으로 이끈 핵심이다.

태양의 서커스에는 아티스트 1300명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 출신의 직원 50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번 서울 공연에는 46명의 애크러배틱 무용수, 음악가, 가수 등이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

관람료는 6만~25만원. 문의 (02) 541-6236.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추석 특선영화 주인공 도전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0분

여섯 멤버들이 외화 더빙에 도전한다. MBC에서 이번 추석 특선영화로 방영될 '비긴 어게인'의 더빙이 진행되는 스튜디오를 찾는다. 외화 더빙이 모두 처음인 멤버들은 전문 성우들에게 직접 더빙 노하우를 배우며 기본기를 익힌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교재로 목소리 연기 공부를 한 멤버들은 주인공 배역을 따내기 위한 오디션에 참여해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SBS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
금요일 오후 10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병만족의 마스코트 갓세븐의 잭슨은 계속되는 정글 생활에 탈진하고 만다. 새로운 생존지를 찾아 험난한 역주행길에 지쳐 자신이 정글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4시50분

라희와 라율은 전라남도 구례의 외갓집을 방문한다. 자신의 몸집만 한 토종닭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닭장에 들어가 직접 달걀을 꺼내는 등 남다른 적응력을 보인다.

◆ KBS2 '다큐3일'
일요일 오후 10시55분

3년째 매일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김춘국 씨의 이야기를 그린다. 어머니의 3년 상을 치르고 있는 그는 못다한 효도를 3년 상으로 대신하기 위해 오늘도 인천가족공원을 찾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올`리브
26일(토)	12:10 추석기획 국악한마당 13:50 추석특선 인간극장 (재) 15:20 2015 추석 장사 씨름대회 17:00 KBS 뉴스 17:10 추석특집 동물의 왕국 18:00 추석기획 동행 19:10 추석기획 다큐 공감 20:00 이어령의 백년서재 21:00 KBS 뉴스 9 21:40 대한민국 청춘응원콘서트 꿈꾸라, 도전하라 22:50 글로벌 다큐 라이프 스토리 23:45 콘서트 7080 24:50 추석특선영화 워터 디바이너	11:3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13:40 개그 콘서트 15:15 슈퍼맨이 돌아왔다 17:00 2015 세계 리듬체조 올스타 갈라쇼 18:05 추석 기획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추석 기획 연예가 중계 22:3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23:50 추석 특선영화<피 끓는 청춘>	11:55 MBC 뉴스 12:05 무한도전 스페셜 13:25 그녀는 예뻤다 (재) 15:30 MBC 뉴스 15:40 쇼! 음악중심 16:50 추석특집 우리 결혼했어요 18:20 추석특집 무한도전 19:55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24: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0:40 추석특집 접속! 무비월드 12:10 미세스캅 (재) 14:30 런닝맨 (재) 15:40 SBS 뉴스 15:50 아빠를 부탁해 (재) 16:50 추석특집 오!마이 베이비 18:25 질주본능 더 레이서 20:00 SBS 8 뉴스 20:45 추석특집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40 추석특집 심폐소생송 23:55 추석특집 셰프끼리	10:20 디데이 (재) 13:00 썰전 (재) 14:2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5:4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7:00 비정상회담 (재) 18:20 디데이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디데이 21: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3:00 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24:50 디데이 (재)	10:00 나는 자연인이다 (재) 11: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5:30 [추석특집]엄지의 제왕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알토란 (재)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3:00 [추석특집]속풀이쇼 동치미	10:30 삼시세끼 정선편 (8회·재) 12:20 삼시세끼 정선편 (9회·재) 14:10 삼시세끼 정선편 (10회·재) 16:00 삼시세끼 정선편 (11회·재) 17:50 집밥 백선생 (19회·재) 19:10 두번째 스무살 (9회·재) 20:30 두번째 스무살 (10회) 21:40 SNL 코리아 시즌6 (19회) 23:30 삼시세끼 정선편 (12회·재)	11:00 오늘 뭐 먹지? 12:00 2015 테이스티로드 (32회) 13:00 2015 테이스티로드 (23회)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24회) 15:00 2015 테이스티로드 (21회) 16:00 2015 테이스티로드 (20회) 17:00 비법 18:10 오늘 뭐 먹지? 19:30 집밥 백선생 21:00 2015 테이스티로드 (32회) 22:00 오늘 뭐 먹지? 23:00 2015 테이스티로드 (32회) 24:00 비법
27일(일)	12:10 추석특집 지구촌 노래자랑 13:50 추석특선 인간극장 (재) 15:20 2015 추석 장사 씨름대회 17:00 KBS 뉴스 17:10 추석기획 행복한 지도 (재) 17:40 추석기획 열린음악회 19:10 추석기획 섬마을 도전, 골든벨 20:00 추석특집 해망동 황해도 사람들 21:00 KBS 뉴스 9 21:40 대한민국 청춘응원콘서트 꿈꾸라, 도전하라 22:50 글로벌 다큐 라이프 스토리 23:50 추석특선영화 아메리칸 셰프	10:25 출발 드림팀 시즌2 11:35 해피 투게더 스페셜 13: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4:15 부탁해요, 엄마 (재) 16:30 추석 기획 해피선데이 19:55 부탁해요, 엄마 21:15 추석 기획 개그 콘서트 22:55 추석 기획 다큐멘터리 3일 23:55 별난 며느리	10: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00 출발! 비디오 여행 13:05 엄마 14:05 내 딸 금사월 (재) 15:20 MBC 뉴스 15:30 추석특집 섹션 TV 연예통신 16:30 추석특집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19:55 추석특집 MBC 뉴스데스크 20:45 엄마 22:00 내 딸 금사월 23:15 추석특집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24:55 추석특집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09:30 추석특집 TV 동물농장 10:50 정글의 법칙 (재) 12:00 SBS 뉴스 12:10 추석특집 심폐소생송 (재) 13:15 용팔이 (재) 15:30 SBS 뉴스 15:40 SBS 인기가요 16:50 추석특집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00 SBS 8 뉴스 20:45 추석특집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05 추석특선대작 기술자들 24:15 추석특집 셰프끼리	10:30 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재) 12:2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7:50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재) 19:40 JTBC 뉴스룸 20:3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1:45 김제동의 톡투유 23:00 히든싱어 4 커밍순 특집 도플싱어 가요제 24:50 디데이 (재)	10:0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3:50 [추석특집]속풀이쇼 동치미 (재) 15:50 아궁이 (재)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재) 19:40 MBN 뉴스 8 20:30 속풀이쇼 동치미 (재) 21:40 [추석특집]천기누설 23:00 [추석특집]알토란 24: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2:20 SNL 코리아 시즌6 (재) 14:10 두번째 스무살 (재) 15:30 두번째 스무살 (재) 16:50 집밥 백선생 (재) 18:10 수요미식회 (재) 19:40 코미디 빅리그 3쿼터 가을특집 썸남썸녀 21:10 집밥 백선생 (재) 22:30 문제적 남자 24:00 처용 2 (재)	10:30 올리브쇼 2015 11:40 비법 13:00 오늘 뭐 먹지? 14:00 2015 테이스티로드 15:00 비법 (4회) 16:20 비법 (5회) 17:30 비법 (6회) 18:50 비법 (7회) 20:00 2015 테이스티로드 21:00 내친구와 식샤를 합시다 22:20 올리브쇼 2015 23:30 레이먼킴의 옥상캠핑 24:00 언제나 칸타레2

레알 마드리드, '시리아 난민 부자' 초청

스포츠 주간 해프닝

헝가리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카메라 기자가 발을 거는 바람에 아들을 안고 넘어져 세계인의 안타까움을 샀던 시리아 난민 부자가 행운을 얻었다.

시리아 난민 오사마 압돌 모센과 그의 두 아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와 그라나다 경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초청을 받아 '슈퍼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만났다.

모센의 아들 자이드는 경기 시작에 앞서 호날두의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이달 초 헝가리 뢰스케 인근 난민수용소에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헝가리 카메라 기자가 일부러 발을 거는 바람에 넘어져 전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또한 스페인 국립 축구코치트레이닝센터는 모센이 시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에서 감독을 지낸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왼쪽)과와 오사마 압돌 모센의 아들이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경기에서 함께 그라운드에 나서 팬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② 18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5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말 무사 1, 2루 때 삼성 나바로가 삼성 스와잭의 공을 치고 있다. 나바로는 이 타구로 삼중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③ 18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5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채태인(1루 왼쪽)이 오재원을 태그아웃하고 있다. /MBC스포츠 제공

공 하나로 아웃카운트 3개

두산 베어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올 시즌 3번째이자 역대 61번째 삼중살(트리플 플레이)을 기록했다.

18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경기. 삼성 1회말 무사 1, 2루에서 야마이코 나바로가 친 타구를 두산 유격수 허경민이 다이빙 캐치로 잡았다.

볼 카운트가 3볼-2스트라이크였고 주자 2명은 이미 다음 누를 향해 출발한 상황이었다. 공을 직접 잡은 두산 유격수 허경민은 공을 2루수 오재원에게 넘겼고 오재원은 2루 베이스를 밟은 뒤 2루 베이스까지 달려온 1루주자 박해민을 태그했다.

두산은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3개를 잡는 행운을 누렸고 삼성은 진기록의 희생양이 됐다. 지난 12일 잠실 KT 위즈전에서 삼중살의 피해자가 됐던 두산은 삼성전 트리플 플레이 성공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타임을 외쳤어야지

프로야구에서 안타를 치고 1루에 진출하고도 아웃을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18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2-2 동점을 이룬 4회초 두산의 공격 때 1사 후 오재원이 다시 중전 안타를 치고 1루를 밟았다. 그런데 1루에 도착한 오재원이 배팅 장갑을 벗고 주루 장갑을 끼는 사이 삼성 1루수 채태인은 조용히 유격수 김상수에게 공을 던져 달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영문을 모른 채 바라보던 김상수는 금세 상황을 파악한 뒤 채태인에게 빠르게 송구했다. 채태인은 곧바로 옆에 서 있던 오재원의 등을 글러브로 태그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임채섭 1루심은 오재원의 아웃을 선언했다. 어안이 벙벙한 두산 벤치와 오재원이 잠시 항의의 뜻을 표현해봤지만 야구 규칙상 확실한 아웃이었다.

오재원은 심판에게 타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스에서 발을 뗀 채 장갑을 바꿔 끼고 있었다. KBO 공식 야구규칙에는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한 뒤 심판원이 타임을 선고해 경기를 정지시키지 않는 한 볼 인플레이 상태는 계속 된다'고 명시돼 있다.

채태인의 기지로 삼성은 귀중한 아웃 카운트 1개를 얻을 수 있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토트넘,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완패

손흥민, 후반 22분 교체출전

3경기 연속골에 도전했던 손흥민(사진)이 교체 투입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소속팀 토트넘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패했다.

토트넘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원컵 3라운드(32강전) 홈 경기에서 마티외 플라미니에 2골을 내주며 1-2로 졌다.

손흥민은 후반 22분 안드로스 타운젠드 대신 교체 투입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 26분 아스널의 플라미니에게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내줬다. 후반 11분 아스널 수비수 칼럼 체임버스의 자책골에 힘입어 가까스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으나 후반 38분 또다시 플라미니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패했다.

한편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은 풀타임 출전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트와이트 게일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찰턴을 4-1로 대파했다. /하희철 기자

추신수, 3경기 만에 안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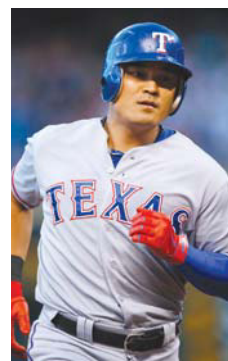
볼넷도 두 개 추가… 타율 0.271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3경기 만에 안타를 때리고 두 차례나 볼넷을 고르는 등 '출루 기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 콜리세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방문경기에서 3타수 1안타를 치고 두 차례 볼넷을 골라 세 번이나 출루했다. 타점과 득점도 하나씩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0에서 0.271로 조금 올랐다.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한 추신수는 5회 무사 3루 기회에서 다시 타석에 들어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벨트레의 좌월 석 점 홈런 때 홈을 밟았다. 승리를 눈앞에 둔 9회 1사 2루에서 오른손 투수 R.J. 알바레스를 상대로 깨끗한 우전 적시타를 쳐 타점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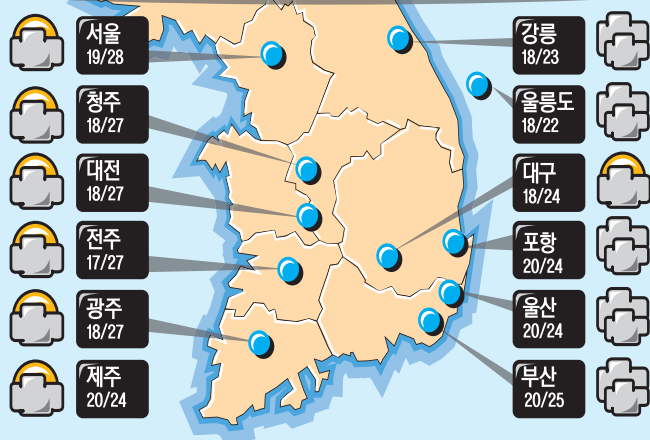
텍사스는 엘비스 안드루스, 애드리안 벨트레의 석 점 홈런과 루그네드 오도르의 솔로 홈런 등 대포 세 방을 앞세워 오클랜드에 10-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하희철 기자

지동원이 24일(한국시간) 독일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분데스리가 6라운드 묀헨글라트바흐와의 원정경기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 공식 홈페이지 제공

구자철-지동원, 페널티킥 유도는 했지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한국인 3총사' 구자철·홍정호·지동원(사진)이 동시에 선발로 출격해 풀타임을 뛰었다. 하지만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아우크스부르크는 24일(한국시간) 독일 묀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에서 묀헨글라트바흐에 2-4로 패했다.

구자철, 홍정호, 지동원은 나란히 선발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들 3총사가 나란히 선발로 출격해 풀타임을 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구자철과 지동원은 나란히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이날 팀이 뽑아낸 2득점을 만들었다. 후반 6분 지동원이 상대 수비수인 알바로 도밍게스의 반칙을 끌어내 페널티킥을 따냈고, 팀동료인 폴 베르헤흐가 추격골로 완성했다. 후반 30분에는 구자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베르헤흐가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했지만 더는 골을 넣지 못하고 패했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6	1			
	6	1			9		2	4
							1	
		4	7			3		2
	2						8	
8		3			4	6		
	5							
3	1		9			2	6	
			1	5				8

9		5				8		
	1		9		7	3		
					8			
4			7		2		1	8
1				6				5
2	5		8		3			4
			6					
		8	3		5		9	
		4				5		6

스도쿠 정답

7	8	2	4	6	1	5	3	9
5	6	1	8	3	9	7	2	4
4	3	9	2	7	5	8	1	6
6	9	4	7	1	8	3	5	2
1	2	5	3	9	6	4	8	7
8	7	3	5	2	4	6	9	1
9	5	7	6	8	2	1	4	3
3	1	8	9	7	4	2	6	5
2	4	6	1	5	3	9	7	8

9	3	5	1	2	6	8	4	7
8	1	6	9	4	7	3	5	2
7	4	2	5	3	8	1	6	9
4	6	3	7	5	2	9	1	8
1	8	7	4	6	9	2	3	5
2	5	9	8	1	3	6	7	4
5	9	1	6	8	4	7	2	3
6	2	8	3	7	5	4	9	1
3	7	4	2	9	1	5	8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have NOTHING to wear

A: ARGH. This is so frustrating! I'm going to a wedding this weekend and I **have NOTHING to wear.**

B: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r closet is filled to capacity.

A: It's all last season's stuff. I need something new.

B: What about that dress you wore to Haney's 1st birthday party?

A: I can't wear that again! Everyone has seen it!

B: That outfit you wore to brunch 2 weeks ago was also pretty cute.

A: It's getting a little tight around the waist and the baby stained the blouse.

B: You know what this means?

A: Time to go shopping!!! :)

B: Everything is on sale right now, too! Hehe Are you in?

A: Yes, Ma'am!

입을 게 하.나.도. 없어

A: 으아~~~~. 미치겠다! 이번 주말에 결혼식에 가는데 **입을 게 하나도 없어.**

B: 무슨 말이야? 옷장에 잔뜩 있잖아.

A: 몽땅 지난 시즌 거야. 새 옷이 필요하다구.

B: 하니의 돌잔치에 입었던 원피스는 어때?

A: 그걸 또 입을 순 없지! 다들 이미 봤는데!

B: 2주 전에 브런치 먹을 때 입었던 옷도 꽤 예뻤던데.

A: 허리 부분이 좀 타이트해지고 아기 때문에 블라우스가 얼룩졌어.

B: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알지?

A: 쇼핑 타임!!!

B: 게다가 지금 몽땅 세일 중이야! 헤헤. 갈거지?

A: 네, 마님!

* Are you in? (함께) 갈 거지?(할 거지?)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통신분야서 제2 인생을 시작해도 될까요? 사업 고달파… 교육계 자격증 공부하시길

king2 남자

Q 메트로를 즐겁게 보고 있으며 선생님의 '사주속으로'를 통하여 대중의 인생 멘토가 돼 주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들이 철밥통이라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50대의 남자입니다.

조직 내에서 초록이 동색 되어 구정물에 손을 담글 때 같이 동조를 해야 하는데 저는 성격상 그러질 못 할 때가 종종 있어서 소외감을 엄청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듯이 이참에 그만두고 통신 분야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면 안 되는데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 둬야 하잖습니까?

A 귀하의 성정은 '초목에 양광이 비치는 격'이니 진취적으로 운세가 상승되는 목화통명(木火通明)하여 지성이 돋보이고 인물이 준수 합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중년이후도 학구열이 식지를 않고 명예욕이 많으며 겉으로는 강한 수완가 형이지만 안으로는 종종 침착성을 잃어 경솔한 언행으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맞춰 주변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2018년까지 운세는 독존적이면 견디기 힘이 듭니다. 병화(丙火)사주가 사월(巳月)뜨거운 계절에 태어났는데 사주뿌리에 화기(火氣)가 너무 강하여 관성(官星:관직을 나타냄)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운이 사주구조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직장생활이 고달프게 됩니다.

사업 운이 록궁(祿宮)에는 있으므로 현직을 떠나 사업을 해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운세가 하향 시에는 뭐를 해도 고달프기만 하니 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학당귀인(學堂貴人)은 장생궁(長生宮)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성을 살려 퇴근 후 교육계의 자격증을 습득하도록 하십시오. 몇 년 뒤인 2019년부터 특히 길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주에 너무 강한 화기(火氣)로 재궁(財宮)이 불리하여 재물 손실이 우려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가정까지 무너지게 될 것이니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도 궁금하다면 창업에 따른 컨설팅을 소상공인 지원 센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비즈니스지원단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자문을 해주니 원이나 없도록 문의는 해보십시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의 할 점은 홍염살(紅艶殺)로 도화(桃花)의 작용과 유사하여 외정(外情)이 두려울 지경에 이르기도하니 2016년부터 이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25일 (음 8월 1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거듭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 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윗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9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61년생**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3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데 만전을 하세요. **85년생**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50년생 불필요한 고집은 자제하세요. **62년생** 부부사이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있겠습니다. **74년생** 겉만 좋고 실속은 없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86년생** 유혹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51년생 재는 크고 이름고 관은 성공합니다. **63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75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87년생**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니 사람들이 따릅니다.

52년생 실패를 보게 되는 운이 있습니다. **64년생** 현재에 만족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76년생**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88년생** 마음의 병이 나를 괴롭히는군요.

53년생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65년생** 가정에는 기쁜 일이 생겨 행복한 일진입니다. **77년생** 모든 운이 길합니다. **89년생**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4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78년생** 매매가 이뤄지나 큰 이익은 없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55년생 전화위복을 실감하는 하루입니다. **67년생** 돈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79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체력관리에 힘을 쓰세요. **91년생** 소망이 너무 원대하니 조금 낮춰서 생각해보세요.

56년생 세상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68년생** 준비된 자만이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80년생**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92년생** 물가에 가려거든 조금만 미루세요.

57년생 때를 만났으니 성공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려움을 잘 참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1년생** 다툼을 하려거든 참고 다음으로 미루세요. **93년생**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58년생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년생** 주색잡기를 조심하세요. **82년생**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94년생** 유흥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59년생 분주하나 소득이 없습니다. **71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3년생** 결과에 연연하면 실력발휘가 안됩니다. **95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 입니다.

남성과 부모의 명절맞이 변화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정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기회다. 그러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뒤처리를 하는 일이 특정인, 주로 여성이나 며느리에게만 쏠리면 괴로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 며느리 깁스나 명절 당직근무 생각이 간절할 만하다.

집안일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성 혼자 버는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도 맞벌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의 4.4배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남성 혼자 벌더라도 아이가 어리거나, 명절 때처럼 일이 매우 많을 때는 당연히 집안일을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 남성들이 명절 때는 시부모 눈치를 보느라 평소보다도 집안일을 덜 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오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명절증후군이 생기고, 명절 후 이혼신청건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필자는 명절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와 설거지, 음식 쓰레기 처리, 청소까지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 한다. 맞벌이라서 '내 일'로 여기고 한다. 절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다. 설거지까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음식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기 마련이다. 아들 며느리가 오면 고부가 사이좋게 밥상을 차린다. 우리 부자는 함께 설거지 등 뒤처리를 한다. "집안일을 '내 일'로 알고 함께할 생각이 없으면 맞벌이를 바라지 말라"는 말을 필자에게서 자주 들은 아들은 맞벌이를 택하며 가사 분담을 나름대로 실천한다.

온라인교육 사이트 '홈런'이 최근 추석맞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혼여성의 48.9%(269명)가 '온종일 음식준비를 시키고 남자들은 TV만 볼 때 가장 화가 난다'고 답했다. 이어 '친정에 안 보내주거나 늦게 보내줄 때' 18.9%, '친정 가면 잠만 자는 남편' 12.5% 순이다.

기혼남성은 '목돈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49.7%(88명), '장거리 운전' 20.3%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참그린의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명절 기간 가족이나 남편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집안일'은 '설거지(60%, 435명)', '청소(20%, 144명)', '아이 돌보기(11%, 78명)' '음식만들기(9%,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내 손이 고우면 누군가의 손이 거칠어진다. 나만 편하자고 들면 상대방은 고달프고 불행해진다. 배우자의 불행은 결국 나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부부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평소에나, 특히 명절에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성들이여, 올 추석부터는 변해보자. 집안일을 '내 일'로 알고 함께 해서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자. 웃음 바이러스는 나에게도 행복을 안겨준다.

그와 함께 올해부터는 부모들도 변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며느리나 딸 뿐 아니라 아들 사위에게도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먼저 한마디 하면 좋겠다. 아버지들은 집안일을 함께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것이 이혼율이 높아지는 요즘 세상에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도록 돕는 길이다.

社說

박삼구와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6년만에 박삼구 회장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채권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 7228억원(주당 4만1213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박 회장은 24일 오후 채권단과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채권단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경영권을 되찾게 됐다.

채권단이 올 연초에 실시한 금호산업 매각입찰에는 호반건설이 최고가로 응찰했다. 그렇지만 채권단은 호반건설을 내치고 박 회장에 넘겼다. 그 결과 매각가격은 1200억원 이상 올랐다. 채권단으로서는 외견상 성공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계량하기 어려운 손실이 더 커 보인다. 무엇보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경영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해당 기업을 되돌려준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12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통해 거액의 출자전환을 해주는 등 많은 혜택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베풀었다. 그것은 채권단의 손실이요, 국민의 손실이었다. 더욱이 박삼구 회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에 넘겼다. 계열사가 인수한 기업어음은 워크아웃으로 말미암아 모두 부실채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과거 부실 기업어음을 발행했던 다른 대기업과 그 총수, 그리고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는 냉엄한 책임추궁이 뒤따랐다. 경영권도 박탈됐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아차의 김선홍, 한보의 정태수, 진로의 장진호, LIG손해보험, 동양증권 등 많은 기업과 기업인이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그런데 박삼구 회장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도리어 경영권을 되찾았다. 이들 '불운'의 대기업에 비해 박삼구 회장과 금호아시아나에게는 큰 특혜를 준 셈이다. 채권단과 기업 모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특혜와 도덕적 해이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엑스트라의 추억

기자 수첩
하희철
<생활문화부>

드라마 촬영 현장 취재를 나갈 때면 학창 시절 재미 삼아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돈도 벌면서 연예인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과 사극 드라마에 출연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이야기다.

당시를 추억하자면 사실 고생했던 기억 밖에 없다. 매일 아침 7시면 얼굴에 수염을 붙이고 가발을 쓴 채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는 의상을 입어야 했다. 밥도 제돈 주고 사먹어야 했고 자는 곳이 마땅치 않아 버스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다. 촬영에 들어가면 더욱 힘들었다. 카메라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면서 땡볕에 꼼짝도 않고 서있어야 했고 소위 반장이라 하는 사람의 욕지거리를 들으며 통제에 따라야했다.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도 매우 적었다. 보조출연자를 주먹구구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산받기 어려웠다. 일을 한 뒤 꼭 한 달 뒤에나 돈이 나왔다. 그마저도 반드시 본인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도장을 찍어야 했다.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 보조출연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우선 일한 대가에 대한 지급 방식이 간편해졌다. 직접 수령 방식에서 통장 수령으로 바뀌었고 주급, 일급 등의 지급 방식도 생겼다. 예전에는 야간 촬영을 해도 제대로 정산 받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9시간 이후의 추가 촬영은 1.5배의 수당이 붙는다. 군대처럼 반장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야' 혹은 '어이' 등으로 호명되는 모습도 없어졌다. 야외 세트장에는 샤워실을 갖추고 있어 촬영을 마치면 곧바로 씻을 수 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다.

드라마는 종합 예술이다. 대본과 연출, 연기 외에도 조명·음향·분장·의상·편집·효과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작품이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카메라 바깥의 수많은 사람들이 좀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보조 출연자도 그 중 하나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드라마 촬영 현장에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름 없는 보조 출연자들의 처우를 개선한 현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장거리 운전 시, 허리·목 통증 예방법

생활 건강

추석 연휴를 맞아 마냥 즐거울 것만 같은 귀성길이 시작되지만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로 정체는 귀성객들의 큰 골칫거리다. 특히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몇시간씩 되는 장거리 운전으로 정작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녹초가 되는 일은 다반사다. 몸의 중심인 척추에 피로가 쌓이면서 나타나는 '척추피로증후군'을 겪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피로증후군은 목뒤 근육과 어깨 근육이 함께 늘어나면서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온몸이 이유 없이 쑤시는 질환이다. 장시간 운전의 경우 일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 근육이 경직돼 쉽게 피로해지는데 이때 잘못된 자세까지 더해지면 허리와 목에 통증을 유발하며 겪을 수 있다.

척추 관절 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이길용 원장은 "대체로 앉아있을 때 척추가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서 있을 때보다 1.5~2배 이상 실려 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다"며, "명절에 운전을 하면서 똑같은 자세로 비좁은 운전석에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허리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 통증도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 시 나쁜 자세 또한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뒤로 젖혀 누운 자세로 운전을 하거나 한쪽 팔을 차창에 기대고 삐딱하게 운전을 하는 잘못된 자세는 근육을 경직 시켜 쉽게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도 떨어져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허리 통증 외에도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운전이 미흡한 경우 내비게이션, 사이드 미러 등을 체크하며 본인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면서 허리는 등받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목은 앞으로 내밀며 거북목 자세를 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인 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국제협력팀장 손성은 ▷금융분쟁대응팀장 진선영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승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하태욱
◇부산지방우정청▷보험영업과장 심정보 ▷예금영업팀장 우원식
◇경북 경주시△5급 승진▷회계과 이희철 ▷시정새마을과 임보혁 ▷외동읍 이종룡 ▷건설과 김수식 ▷토지정보과 안원준 ▷산림경영과 하진식 ▷건강증진과 김경희
◇해양수산부△과장급 전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박장호

인 사

▲ 이청우 씨 별세, 한승훈(한화도시개발 용인사업팀장)씨 빙부상= 23일 오후 2시,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25일, 장지 분당메모리얼파크, (02-923-4442)
▲ 전갑균 씨 별세, 오광록(광주일보 경제부 기자)씨 모친상 = 23일 오전,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발인 25일 낮 12시. (061-379-7433)

기사제보=02)721-9832